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70호
Tuesday, April 8, 2025 A

영주권 전과자 구금 잇달아

SPECIAL STORY

불체자처럼 범죄 전력 조사
"음주운전자 등 출국 피하고
모르는 서류엔 서명 말아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대에서 연방국경세관국(CBP)요원이 입국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중범죄 불법체류자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범죄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처벌을 다 받았는데도 전과로 인해 구금 또는 추방위기에 처하는 영주권자 사례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마를론 패리스(45)라는 영주권자의 사연을 보도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영주권을 취득한 패리스는 이라크전에 두차례 파병돼 모범 복무 훈장까지 받은 참전용사다. 하지만 패리스는 전역 후인 지난 2011년 마약 밀매 연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은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들어서기 6개월 전에 ICE와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추방 대상은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받기도 했다"며 "2016년에는 영주권 갱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구금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단속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패리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주지인 애리조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ICE요원들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패리스의 추방심사 재판은 오는 25일진행된다.

지난달에는 영주권자인 루엘 린딕슨(64)이 필리핀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여년 전의 범죄사실로 워싱턴주 시택공항에서 체포된 일도 있었다.

그는 2000년 횡령 혐의로 벌금 6400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전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해외여행은 하지 말 것과 시민권 신청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

트럼프 대통령 3선 공론화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마친 뒤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 진위와 더불어 가능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선 도전은 농담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내가 3선에 나서길 원하고, 나는 대통령 일이 좋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헌법상 허점'을 파고든 방법이냐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첨언했다.

헌법상 헛점을 노린 방법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고, 허수아비로 내세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사임하면 트럼프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승계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연방헌법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만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통령 궐위에 따른 승계 취임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도 연속 재임이 아니기 때문에 3선 제한 규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3선 도전 가능성이 공론의 장으로 옮겨온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발언이나 아이디어를 내놓은 후 반복해서 이를 거론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2021년 1월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용의자들을 사면할 것이라는 발언이 현실화됐다.

관세와 불법이민 추방 등 지난 선거 당시 공약으로 발표했던 대부분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그린란드와 캐나다 편입 등도 단순한 농담으로 들렸으나 이제는 진지하게 숙고되고 있다.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의사를 더이상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실시된 유고브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응답이 56%에 달했다.

김옥채 기자

6월3일 대선, 재외선거도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치러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심의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2017 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을 선고 60일 뒤인 5월 9일(화요일)로 정했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될 전망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규태 기자

"관세 협상 즉시 개시"

'상호 관세' 후폭풍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미국과 만나고 싶은 나라와 즉각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상호 관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뉴욕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태도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상호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34% 관세를 부과하자 "8일까지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중국이 이 요구에 불응하면 모든 대화창구가 닫힐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과 다른 국가와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가장 큰 중국을 제압하지 못할 경우 '관세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0% 추가관세가 실현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모두 104%의 관세가 부과된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Total Business Solution
스마트보험에서는 비즈니스 보험과 직장 건강보험관련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업종별 맞춤 비즈니스 보험
(GL, WC, E&O, Bond 등)
베네핏 컨설팅을 통한 최적의 직장 건강보험
전담 컨설턴트 배정 및 운영 지원
미주 진출 한국 지상사 전문 상담
당사 전용 글로벌 직장 건강보험
(United Healthcare, Aetna)
* 한국내 유명 병원에서도 사용가능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등)
Smart Insurance
BY SOLOMON AGENCY
Smart Choice for Smart People
smartinfo@solomonus.com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703-639-0882

대선 재외국민 투표, 5월 20일 시작할 듯

해외 유권자 등록 개시
웹사이트·공관 방문 가능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6월 3일 이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 정부는 7일(이하 한국시간) 6월 3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했다. 장미대선일은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각 정당은 서둘러 대선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고,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60일을 꽉 채운 3일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탄핵 선고 직후 21대 대통령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시작했다. 〈표 참조〉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 일정에 따르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는 늦어도 선거일전 4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이 기한 안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등록은 선관위 웹사이트(ova.nec.go.kr), 재외공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주민등록된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로 선거 때마다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중 직전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영구명부에 등록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록됐어도 직전 재외선거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았으면 재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거 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 사이 진행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는 최대 4곳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일 외교부는 각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전문을 보내 집무실 내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김형재 기자

2025 재외선거 일정(한국시간)

시행 일정	실시 사항	기준일
4일부터~대선 40일 전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변경) 등록 신청	
4월 14일(월) 이내	재외위원회 설치 (운영기간: 설치일~선거일 후 30일까지)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대선 34~30일 전	재외선거인 명부 등 작성	
대선 30일 전	재외선거인 명부 등 확정	
대선 24~23일 전	후보자 등록 신청	
대선 14~9일 전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한국 내 투표	선거일

자료: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폭스뉴스 "중국 음모로 윤석열 축출당해"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폭스뉴스(Fox News)는 지난 5일 기사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 전략 때문에 축출됐다고 전문가가 말했다(South Korea presidential ouster part of Chinese strategy to 'expand its regional influence,' expert says)〉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애나 마하르-바르두치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한미동맹 약화를 목적으로 한국에 친중파를 양성하려 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같은 중국공산당 전략에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친미적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배제하려고 전략을 꾸민 것이라고 밝혔다.

마하르-바르두치 연구원은 "중국 언론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흡족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등도 전세계적으로 보수정치인들이 똑같은 일은 당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 국회가 계엄 사태를 조사하던 와중에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당시 정보당국 요원의 신원과 정찰 드론 운용 실태, 국방부 지휘통제실 등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로 야당에 의해 이같은 군사정보가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리얼 아이디 5월7일 시행, 연기 없다

리얼 아이디 법률이 오는 5월7일 본격 시행된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23년 5월3일 이전 시행일을 2년 늦췄으나 더이상 연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월7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연방정부 소유 건물에 출입하려면 리얼 아이디를 제시해야 한다. 리얼 아이디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는 미국 여권 뿐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 서류, 소셜 시큐리티 카드 넘버, 거주 증명 2개 등이 필요하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횡령 혐의

카일 맥다니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광역)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에 위치한 블루 라벨 에비에이션은 재무회계 담당 직원이자 자회사 CEO로 일하던 맥다니엘이 모두 17만5천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맥다니얼 위원이 사적으로 12만달러를 유용하고 7만달러 정도를 되갚았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35만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VA 라우던 카운티 '붉은 여우' 조류독감 감염

버지니아 야생자원국(DWR)이 라우던 카운티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붉은 여우 한 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해밀턴 지역에서 이 여우를 구조해 블루릿지 야생동물 센터로 이송해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확진했다고 전했다.

이 여우는 애초 광견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안락사시켰으나, 추후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H5N1 조류독감을 확인했다. 버지니아에서 사람을 포함해 포유류의 첫 조류독감 사례로 기록됐다.

연방농무부에 의하면 현재 버지니아 등 30개 주에서 포유류의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됐다.

당국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야생동물 접촉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체국 배달 소요 시간 변경, 10년간 360억달러 절약

연방우정국이 퍼스트 클래스 메일과 시즌, 광고 메일 등의 배달 소요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퍼스트 클래스 메일의 75%는 시간 조정이 없지만, 14%는 시간이 빨라지고 11%는 느려진다.

조정 후에도 퍼스트 클래스 메일의 배달 권장 시간 1-5일과 그라운드 어드벤티지 2-5일은 변함이 없다.

당국에서는 이같은 조치로 향후 10년간 모두 36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호텔 개조한 홈리스 쉘터 개장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기존의 호텔을 리모델링한 홈리스 쉘터를 개장했다.

페어 릿지 쉘터(3997 Fair Ridge Drive, Fairfax)로 명명된 이 쉘터에는 모두 85 패밀리 객실이 구비돼 있다. 카운티 정부는 작년 이 호텔을 1450만달러에 매입해 개조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근처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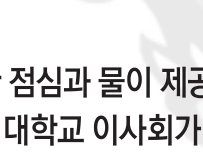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4월 8일(화) 48-30

9일(수)	55-41	12일(토)	56-45
10일(목)	56-47	13일(일)	62-45
11일(금)	57-45	14일(월)	71-55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Lee Jackson Memorial Hwy, 2nd Fl Fairfax, VA 22033 (T.703-449-7629)

RENT I-495 가까운1층 콘도 킹스팍 $1,600 방1, 화1
RENT 4층 타운하우스 헌던 $4,100 방4, 화4 1/2, 차고2
RENT 4층 타운하우스 헌던 $3,900 방4, 화4 1/2, 차고2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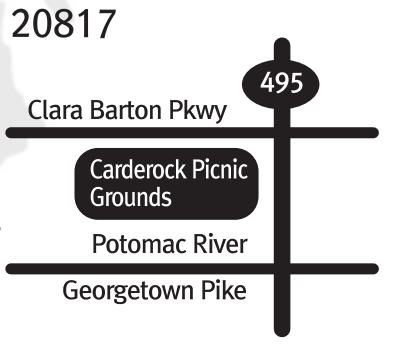
4.18 대장정

2025

4.18 의거 65주년을 맞아
워싱턴 지역 고려대학교 동문들을 초대합니다.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
사악과 불의에 항거하여
압제의 사슬을 끊고
분노의 불길을 터뜨린
아! 1960년 4월 18일!
천지를 뒤흔든 정의의 함성을 새겨
그날의 분화구 여기에 돌을 세운다.
(4.18 기념탑에 새겨진 조지훈 시인의 비문)

● 일 시 : 2025년 4월 19일 (토) 오전 10시
● 장 소 : Carderock Picnic Pavilion, MD
9500 Macarthur Blvd., Bethesda, MD 20817
● 행사 안내
- 달리기 행사 후 간단한 점심과 물이 제공됨
- 선착순 50명에게 고려대학교 이사회가 준비한 티셔츠 증정
▶ 문의 : kualumni.dc@gmail.com
(RSVP는 행사 일주일 전인 4월 10일까지)



주관 : 고려대학교 워싱턴지부 이사회

연방정부 대법원에 추방불체자 송환금지 청원

MD 연방법원 판사와 힘겨루기

폴라 시니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연방법무부의 효력 일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엘살바도르 국적 이민자를 7일(화) 자정까지 메릴랜드로 데려와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1년 전 난민 신청을 거친 합법 체류자였으나 연방 이민당국은 3월15일 중남미 갱단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등으로 오인해 엘살바도르 구치소로 강제 추방했다.

그의 가족은 송환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폴라 시니스 판사가 즉각 송환을 명령했다.

연방정부도 오류에 의해 추방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며가처분 신청을 내고 항소했으나, 연방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법원 상고까지 간 것이다.

가르시아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로,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존 사우어 연방 청원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불법적인 각종 가처분 명령의 홍수 속에서도 이 명령은 매우 놀랍다"면서 "심지어 추방이 민 당사자들은 연방지방법원에 엘살바도르에 구금된 자신을 사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석방하도록 엘살바도르 정부를 설득하도록 강요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어 청원인은 또한 "미국 헌법은 연방 지방법원이 아닌 대통령에게 외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의무 및 테러리스트의 석방 권한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가르시아가 MS-13 갱단원이었다며 추방 조치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추방된 이상 미국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법원 역시 관할 밖 사건에 대해 송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시니스 판사는 "연방정부가 가르시아를 데려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며 "우리 법원은 합목적 의도를 실현시키고 정의구현을 위해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앞으로 50년도 주님께 영광"

교협, 희년 감사영광예배 올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전찬선 목사, 이하 교협) 50주년(희년) 기념위원회(위원장 이병완 목사)는 지난 6일 워싱톤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박성일)에서 50주년 기념 감사영광예배를 올렸다.

이병완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전찬선 회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50주년을 맞아 이땅에 사랑과 빛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념예배를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교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주섬김 찬양팀의 열린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년을 계기로 바른 성경관과 역사관을 다시 찾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 회복시키자"고 전했다.

이후 김성도 목사의 기도와 박지나 목사의 성경봉독(마태복음 4장18-20절), 메릴랜드 기독합창단과 워싱톤한인장로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가 '천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다.

류 목사는 "지난 50년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잘 따른 교협이, 십자가의 복음에 숙명을 다함으로써 워싱턴 지역이 정치 일번지가 아닌 복음의 일번지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협 임직원들을 향해서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고난은 불행이 아닌 불편함일 뿐"이라며 "역경의 길이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명, 사명의 길을 따라 행복,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얼굴에 복음을 담아 전하자"고 격려했다.

조기중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신앙을 바탕으로 동포사회를 위로하고 보듬으며 희망과 용기를 전한 교협의 활동은 큰 귀감이 된다"면서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단합과 화합의 구심점이 되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봉헌기도는 제46대 회장인 이범 목사가 맡았다.

예배에는 역대 교협 증경회장단과 평신도 부회장에게 감사 기념품을 증정하고 특송을 부르는 순서도 마련됐다.

교협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감사영광예배를 비롯, 50년사 발간과 감사영광음악회, 교협을 빛낸 50인 선정, 목회와 교회론 포럼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감사영광 음악회는 오는 6월1일, 목회와 교회론 포럼은 9월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교협 50년사는 10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지역 사실상 인구감소

타주 이전 늘어, 이민 순유입, 출생자 늘어나 소폭 증가세

워싱턴 지역 인구가 미국내 전출입 순감소가 이어지는 등, 인구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연합단체인 북버지니아지역위원회(NVRC)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는 2010년 이후 매년 전입인구보다 떠나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다.

2010년 이후 전출입감소 인구는 18만 2925명에 달했다.

2013년 이후에는 매년 1만4천명에서 2만2천명이 전출입 순감소했다.

그럼에도 페어팩스 카운티 인구가 이 기간 소폭 증가하는 이유는 이민전출입 순증가분이 많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이민전출입 순증가분은 17만명 이상이다. 여기에 출생/사망 순증가분 13만명이 더해진 결과다.

질 카네프 NVRC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민이 위축될 경우 페어팩스 카운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다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연방정부 감축에도 주택 시장 굳건

대대적인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지역 주택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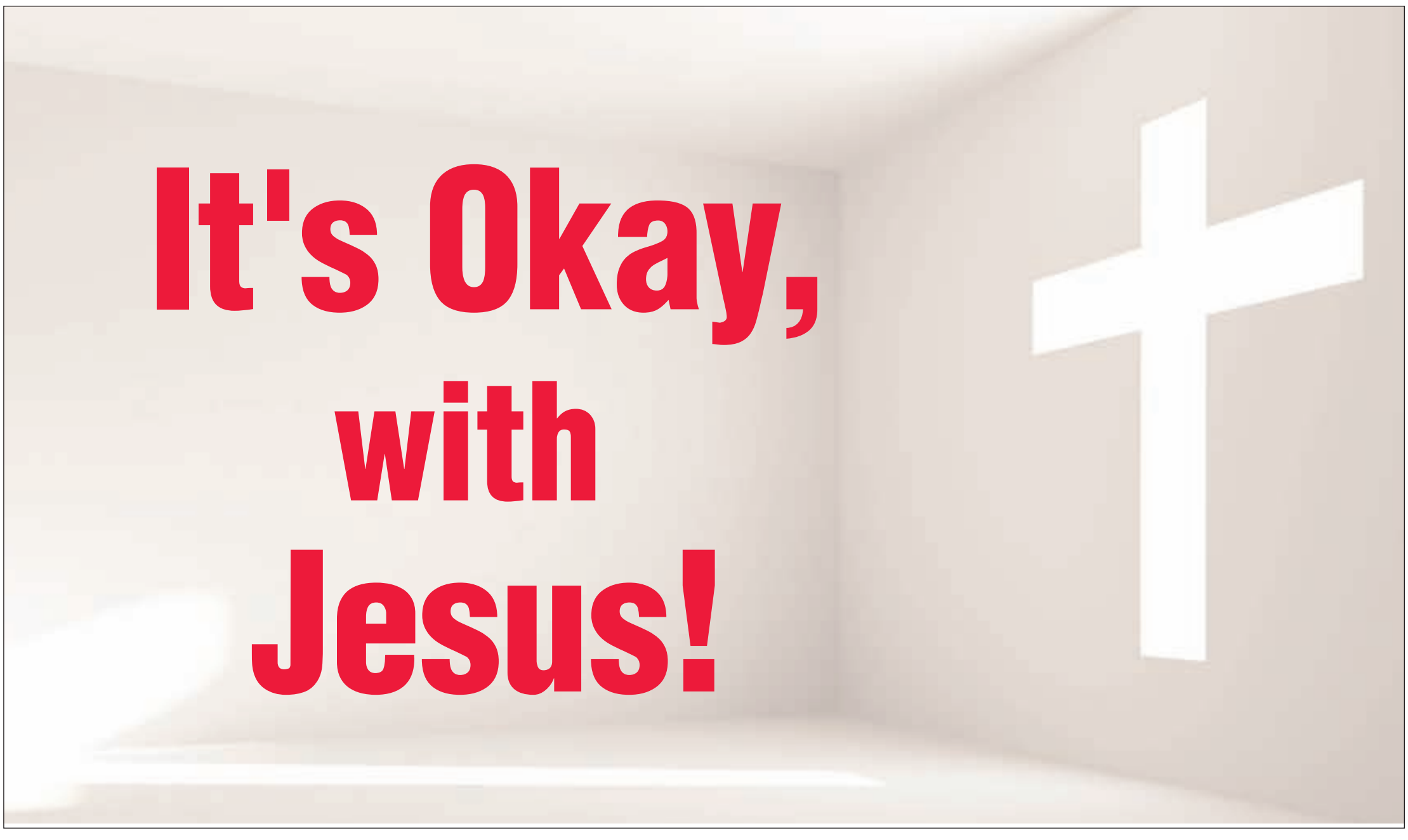
연방정부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시티지역의 경우 올드타운을 중심으로 짚코드 22314 지역의 최근 중간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 높은 87만8500달러를 기록했다. 거래 총액은 28.3%, 거래량은 21.6% 증가했다.

리스팅 대기기간은 6일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해고에도 불구하고 테크, 헬스케어, 사이버시큐리티, 정부용역 일자리 등이 넘쳐나기 때문에 최근의 해고자를 흡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봄철 성수기를 맞아 바이어가 몰리고 있으나, 셀러들의 패닉 셀링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셀러들이 이 지역 주택시장의 견고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폭락장세가 연출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해고가 많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출퇴근 의무 행정명령으로 인해 외곽에 빠져 있던 공무원 복귀가 늘어나 렌트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택 구매 수요 또한 늘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관세 붙기 전에 구입” 사재기 열풍

억만장자 셀럽 “뭐든 사둬라”
소비자 가격 전반 오를 전망
“국내산 제품도 비싸질 것”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물품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베스트바이 매장에 진열된 TV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2일 발표한 이래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발표 다음 날인 3일 기사에서 소비자들이 TV, 간장, 운동복 등 온갖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기 바쁘다고 전했다.

22세 대학생 세다 로치는 2일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라디오 생중계를 들으면서 얼른 캐나다 브랜드 ‘룰루레몬’의 244달러짜리 운동복과 영국 브랜드 ‘하우스오브서니’의 150달러짜리 스웨터를 구매했다. 그의 남자친구 숀 매켄지는 집 밖으로 달려나가 기네스 맥주 캔 8개 들이 3팩을 사서 냉장고 채소 칸에 가득 채워넣었다.

2일 오후 억만장자 사업가이며 TV 출연자인 마크 쿠번은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에 글을 올려 팔로워들에게 사재기를 하라고 권유했다.

그는 “치약부터 비누까지, 보관할 공간만 있다면 뭐든지 사놓으라”며 상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고가 떨어져서 새로 수입품을 주문해 재고를 채워넣으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점들은 제품이) 설령 미국산이라도 가격을 왕창 올리고 관세 탓이라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수퍼마켓과 전자제품 상점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쿠번의 조언처럼 카트에 물건을 가득 실어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학교 교직원인 노엘 페게로(50)는 관세 소식을 듣고 2일 밤부터 3일 오전까지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정원 가꾸기용 도구와 다른 가정용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 3000달러를 썼다고 WSJ에 말했다.

그는 뉴욕시 퀸스의 한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중국 브랜드 ‘하이센스’의 217달러 40인치 TV를 구입해 미니밴에 실으면서 “지금이 사야 할 때”라고 말했다.

15년 전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지금은 한 중국계 제약사의 대표로 일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39세 여성은 간장 20병, 굴소스 10병과 아이들이 간식으로 좋아하는 김을 쟁여두려고 사고 있었다.

그는 매일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는 게 미국의 놀라운 점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식료품을 사는데, 이제 바뀌어야만 한다”고 WSJ에 말했다.

WSJ은 코로나19 시기의 물가 인상은 소비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관세 부과는 그렇지 않다며, 농수산물,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많은 상품들의 소비자 가격이 오를 공산이 크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폰 2300불 될 수도”

관세 부담 소비자 전가 시
최대 43% 가격 인상 예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시행된다면 최악의 경우 아이폰(사진) 최상위 모델 가격이 23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가들의 예상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애플이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아이폰 가격이 현재보다 30~4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날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기존 중국에 적용해온 20%의 관세를 더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는 54%로 급등하게 된다.

월스트리트 로젠블래트 증권은 국내에서 799달러에 출시된 아이폰16 시리즈 기본형의 경우 관세 인상 시 가격이 최대 1142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젠블래트 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계를 토대로 애플이 이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경우 43%의 가격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고급 모델인 아이폰16 프로 맥스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599달러에서 43% 오른 23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지난 2월에 출시된 보급형인 아이폰 16e의 경우 599달러에서 856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당장 아이폰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격이 인상될 경우 판매가 더욱 둔화할 수 있어서다. **한영혜 기자**

‘유니버설’ 1+1 특가 진행
8월 13일까지 구매 가능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방문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선보인다. ‘하루 구매, 둘째 날 무료’ 프로모션을 통해, 1일권을 구매한 고객은 선택된 날짜에 한해 두 번째 날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특별 할인티켓은 오는 8월 13일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방문은 12월 17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첫 번째 방문은 구매 시 선택한 날짜에만 유효하고 두 번째 방문 시에는 일부 날짜가 블랙아웃(입장 제한일)으로 지정되어 있다. 블랙아웃 날짜는 4월 26일, 5월 3일·10일·17일, 7월 5일·12일·19일·26일, 9월 6일·13일·20일·27일, 10월 4일·11일·18일·25일, 11월 26일·28일·29일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일반 입장권에만 적용되며, 다른 티켓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은영 기자**

“비싸고 진정성 없다” 캐주얼 레스토랑 외면

아웃백·피자헛 등 잇따라 폐점
소비자 외식 빈도 감소도 영향
배달·혼밥·테이크아웃 대세

#. 어바인에 거주하는 최재하 씨는 최근 가족의 외식 횟수를 대폭 줄였다. 물가상승 여파로 음식값이 오르면서 4인 가족 한 번 외식 비용이 팁 포함 100달러가 훌쩍 넘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 한 끼를 먹더라도 독특한 경험을 선호하는 정수진 씨는 외식할 때 로컬 맛집을 찾는다. 체인 레스토랑은 ‘음식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 그는 소셜미디어에도 포스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때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불렸던 캐주얼 레스토랑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산층이 즐겨 찾던 캐주얼 레스토랑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레드랍스터와 TGI프라이데이는 지난해 파산보호 신청으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지난 한 해에만 41개, 애플비는 35개의 매장을 폐쇄했다. 피자헛은 2020년에만 300개 이상의 매장이 문을 닫은 후 배달전문 매장을 늘려나가고 있다.

시장조사회사인 데이터센셜은 소비자의 24%가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이전보다 줄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캐주얼 레스토랑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식 메뉴를 선택할 때 싼 가격이나 독특한 경험 중 하나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고물가 시대 들어서면서 고객들이 패스트푸드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팁까지 줘야 하는 캐주얼 레스토랑을 찾지 않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칠리스 같이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면서 잠시 반등하는 레스토랑들도 있지만 캐주얼 레스토랑의 전체적인 하락세를 막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음식 배달 혹은 테이크아웃 이용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캐주얼레스토랑들엔 악재로 작용했다.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 외식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셜의 조사결과에서도 친구나 가족과 외식하는 빈도가 줄었다는 답변은 29%에 달했다.

밀레니얼 세대들도 캐주얼 레스토랑을 기피하고 있다.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나 ‘독특함’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다프네 데메트리 캐나다 맥길 대학교 경영대학원 부교수는 “올리브 가든이나 TGI 프라이데이는 위선적”이라며 “식사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요즘 세대에게 캐주얼 레스토랑은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내 외식 산업의 상징이었던 캐주얼 레스토랑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달라진 소비자의 기준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조원희 기자**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P.C.)가 새로이 출범하여 이에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P.C.

그 동안 저희가 일했던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를 믿고
여러 사안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이민 신청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전)
-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 (전)
-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 (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전)
- VA, NY 변호사 자격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P.C.
(703) 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제로관세 제안 무의미… '비관세 사기' 중단이 협상 포인트"

백악관 무역고문, 주식시장 폭락에 "바닥 찾을 것…당황하지 말라"
머스크에 "그는 제조업자 아닌 車조립자…美서 제조해야"
국가경제위원장 "美에 유리한 협상안이면 트럼프가 들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다수 국가가 무역 협상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7일 관세가 전부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백악관은 또 상호관세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도 폭락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반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패닉 셀링'(공황매도)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사진)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경제방송인 CNBC에 출연, 베트남이 미국에 관세를 제로화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비관세 사기(cheating)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다른 나라가 협상하고 싶어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들을 것"이라면서도 "제로 관세는 작은 첫 스타트다. 제로 관세라는 것에 오도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인트는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모든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의 예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미국 시장에 대한 덤핑, 정부 보조금 등을 열거했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 주식시장 폭락에 대해서는 "내가 보는 것은 다우존스가 5만 포인트를 기록하고 S&P500도 폭넓은 회복세를 보이는 아름다운 상황"이라면서 "시장은 빠르게 바닥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투자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이어 감세 조치를 내놓을 예정인 것과 관련,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감세가 수개월 내에 온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논의도 멍청하게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세 조치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그는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조립하는 사람(car assembler)"이라면서 "배터리는 중국과 일본에서 오고 전자부품은 대만에서 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일론이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와 머스크 간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앞서 나바로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머스크의 관세 정책 비판에 대해 "그는 자동차를 판다"면서 "그는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사람처럼 단지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최근 미국과 유럽 간 무관세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의 나바로에 대해 "자아(ego)가 두뇌(brains)보다 크다"고 공격한 바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그(트럼프 대통령)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을 더 강화하고 있으며 그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는 통상 파트너 국가가 미국 제조업과 농부에게 유리한 정말로 좋은 협상안을 갖고 오면 나는 그가 들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날 밤 대만 측이 연락해 오는 등 많은 국가가 협상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국가들이 미국에 비탄력적인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관세의 주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게 거짓이고 그들이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조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지금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관세는 아름다운 것", 트럼프 "때론 약 먹어야"

관세발 경기침체 우려 확산에도
"뭔가 바로잡으려면…" 혼란 감수
"무역적자 해결 전 협상 안 할 것"
상무장관도 "상호관세 연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 선포 후 첫 일요일인 6일 소셜미디어에 보란 듯 자신의 골프 영상을 올리며 한껏 여유를 과시했다. 7초 분량의 동영상에서는 빨간 모자를 쓴 그가 티박스에서 자세를 잡은 뒤 드라이버로 티샷을 날려 보내는 영상이 찍혔다.

구체적인 영상 촬영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열린 시니어 클럽 챔피언십 라운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내가 이겼다는 것을 들었느냐"며 "이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젠가 사람들은 미국의 관세가 매우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관세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곤두박질치고 있는 증시 폭락의 기준선이 어디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멍청한 질문"이라며 "저는 어떤 것도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만 때로는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 시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정한 시장 혼란은 거쳐야 할 필요악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관세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대상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1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식시장 폭락이 의도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며 "중국, 유럽연합(EU) 및 다른 국가와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무장관, 상무장관과 백악관 경제라인 책임자들은 방송 인터뷰에 총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엄호에 나섰다. '트럼프 관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 연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연기는 없다. 며칠 또는 몇 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는 부과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농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가정은 부정한다. 시장이 하루 뒤, 일주일 뒤 어떻게 반응할지 누가 알겠느냐"며 "이것은 조정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적어도 몇 주 내 협상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ABC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 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미국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며 "그들은 많은 관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구 특파원

금값 장중 3000달러 깨져…엔화는 '100엔=1000원' 찍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일 오전 4시20분(현지시간) 서부텍사스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4.31% 추락한 59.32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60달러 선이 깨진 것은 2021년 4월 13일(배럴당 59.69달러) 이후 4년여 만이다. 상호관세 부과 직전인 이달 초(71.2달러)와 비교하면 4거래일 만에 16.7% 폭락했다. 브렌트유 역시 이달 초 배럴당 74.49달러에서 현재 62.82달러까지 수직 낙하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브렌트유 목표가(배럴당 62달러)를 4달러 낮췄다"고 했다. 올해 초 몸값이 뛴 천연가스도 관세전쟁 여파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MMBtu당 3.75달러로 이달 초보다 5% 하락했다. 경기 흐름을 선제적으로 짚어줘 '닥터 코퍼(Dr. Copper·구리 박사)'로 불리는 구릿값은 이날 파운드당 4.3775달러에 거래 중이다. 이달 초보다 13.1% 급락했다.

그간 하락장에서도 꾸준한 오름세로 '재테크 피난처'로 꼽혔던 금마저 이날 한때 온스당 3000달러 선이 깨졌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9시30분, 전 거래일보다 1.12% 하락한 온스당 2999.7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4일엔 하루 사이 3% 가까이 급락했다.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가 현금 확보를 위해 금을 매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황병진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패닉 셀(공황매도) 영향으로 금 등 귀금속을 제외한 원자재 가격은 한동안 하락 폭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 시장에선 그간 약세였던 엔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안전자산에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달러화나 엔화에 비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00엔당 원화값은 1008.21원으로 마감했다. 전 거래일(981.82원) 대비 26.39원(2.7%) 하락(환율은 상승)해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000원을 넘어선 건 2023년 4월 27일(1000.26원) 이후 약 2년 만이다.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후 4시20분 기준 3.9% 선까지 내려갔다(국채 가격은 상승). 4%대를 하회하는 건 지난해 10월 4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국채를 사들이면서 채권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들이 엔화 강세에도 베팅하면서 이달 초 150엔을 넘나들던 1달러당 엔화값은 이날 145엔 후반까지 상승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엔 강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일부 기대감도 엔화 강세 폭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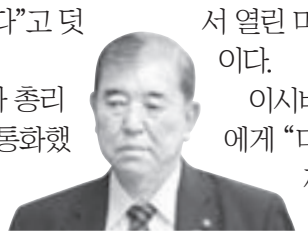
염지현·김경희 기자

이시바, 트럼프와 '관세 통화' … 최대 대미 투자국 강조했다

트럼프 "최고의 협상팀 파견할 것"
양국 담당장관이 협의 지속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사진)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약 25분간 통화해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 힘들지만 공정한 기준이 설정되고 있다"며 "오늘 아침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 우리는 협상을 위해 최고의 팀을 파견키로 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일본)은 무역에서 미국을 매우 열악하게 대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이 자리에서 일본이 최대 대미투자국으로서 미국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거듭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지난 2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미·일 두 나라가 (관세 문제를 논의할) 담당 관리를 지명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겠다"고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통화에서 미국의 대일 추가관세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오는 9일 일본에 대한 24% 상호관세를 발효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일본 정치권과 경제계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자동차 25% 관세, 상호관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한 차례도 일본에 대한 예외 조치를 두지 않았다.

일본은 자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외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임선영 기자

日통일교, 해산명령에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지난달 고액 헌금 수령 등 문제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7일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즉시 항고가 이뤄진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도 해산명령이 유지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해산명령이 집행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 등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교단 측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고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이라크, 트럼프 경고에 친이란 민병대 무장해제 검토"

이라크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와 충돌을 피하고자 자국 내 친이란 민병대를 무장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관리와 민병대 지휘관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뒤 이라크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시아파 민병대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 미군이 이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이라크 정부에 비공개로 경고해 왔다.

이에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주요 민병대 세력 사이에서 무장해제 방안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이라크 시아파 집권세력과 가까운 정치인 이자트 알샤반다르가 로이터에 말했다.

알샤반다르는 이들 민병대가 미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튀르키예, '반정부 시위' 수감자 고문 의혹 일축

"에르도안은 군부 수장"
野 표현에 "용납 못할 모욕"

일마즈 툰츠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사법당국이 야당 대권주자 수사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 구금된 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국영 TRT하베르 방송에 따르면 툰츠 장관은 이날 이스탄불의 한 대학교에서 취재진과 만나 "옷을 벗겨 수색하거나 고문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는 말이 해외에서 나오던데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툰츠 장관은 구치소, 교도소, 법원 등 수감시설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며 "고문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감자 신체 수색도 금지 품목을 소지했다고 의심되는 등 경우에만 법률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알몸 수색'과 같은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툰츠 장관은 시위 때 체포된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됐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청소년은 석방됐고 나머지도 법원에서 판단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날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대표로 재선출된 외즈귀르 외젤 대표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군사정부 수장"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외젤 대표는 자당 소속 유력한 대권주자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시장이 테러·부패 혐의로 체포된 지난달 19일부터 이에 항의하는 반정부시위 투쟁을 이끌어왔다. 외젤 대표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향해 "늦어도 올 11월에는 우리 대선후보에 맞서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28년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조기에 치르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CHP는 지난달 23일 당내 경선을 강행해 옥중에 있는 이마모을루 시장을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웰빙모아 Wellbeing More
봄맞이 특별세일
20% 할인
여성의류, 극세사 이불, 모자, 가방, 내의, 강아지옷, 이불, 소품
침구세트 세일 20% off
사계절 면이불 • 베개 • 이불패드
가을,겨울옷 신상 대량입하!
공진단 • 침향환 특별세일
20% 할인
종근당 침향환 프리미엄
김소형 침향환 녹용
침향분말 22% 함유
광동 침향환
천호식품 천진단
광동 경옥고
황실의 보약 산삼 공진단
사향/ 산삼/ 녹용/ 당귀/ 산수유
풍기홍삼 직영점 입점기념 스페셜 세일
홍삼정환골드
6년근 홍삼분말
풍기 진 홍삼액골드
홍삼액 수
6년근 봉밀홍삼절편
홍삼정 올데이
산삼 배양근
건삼
녹용홍삼
고려태극삼
황풍정
석류 홍삼 콜라겐
고려 홍삼차
종근당
홍삼 마일드
전립쎈
LACTO FIT 락토핏 생유산균
이뮨
코어
슬림
골드
당케어
아이클리어
홍삼스틱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천호식품
함께 먹어 더좋은 녹용 홍삼
목 건강을 위한 도라지 200
남자한테 참 좋은 마시는 산수유
새콤달콤한 맛이 그대로 진한 석류
매일매일 활기차게 민들레와엉겅퀴
냄새없고 맛있는 흑마늘 진액
양배추 쥬스 100 프리미엄
천진단
행복한 양배추즙
행복한 도라지배즙
행복한 자색양파즙
버지니아 총판
장수 브랜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농협 홍삼, 녹용, 산수유, 흑마늘, 도라지, 배즙
항균, 항산화효과 프로폴리스
선삼정
MSM+칼슘의 만남 포스트신바이오 호관원
포스트신바이오 프로바이오틱스
NEW
플레티넘 알티지 오메가-3
NEW
관절 및 연골 건강 하이헬 프리미엄 홍합 12000
풍년 꿀밥 미니 압력솥
풍년 꿀밥 엣홈 미니 압력솥으로 고드레 솥밥을 6분 30초만에 뚝딱!
홍쌍리 청매실원
50년 이상된 전통항아리에 넣어 발효숙성한 매실원액
우메켄 전제품
석류, 제첩엑기스, 발효미네랄, L-칼슘
모다모다 샴푸
바누 저당밥솥
신일 롤링스턴 스팀 청소기
바누 다기능 티팟
누리아이 5800
눈안마 눈안마기
다기능 디지털 우퍼 스피커 효도 라디오
NEW
NUC 만능분쇄기
집에서 쉽게 누룽지 만드는 벧엘누룽지제과기
메디테라피 온열뜸 힐링 솔루션 붙이는 릴렉스 팟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애난데일점 (703) 256-5500
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자이언트 & 곰바우 식당 옆
센터빌점 (703) 830-7755
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롯데앞, 신라제과, 하하핑크 사이
영업시간 9:30am ~ 7pm (365일)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ra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T의 공포’ 아시아 증시 휩쓸다

〈Trump Tariff·트럼프 관세〉

코스피 5.6%, 중·일 증시 7%대 하락
대만 9.7%, 홍콩은 주가 13% 빠져
유럽 증시도 개장초 급락세로 출발
원화값 34원 하락, 코로나후 최대폭

‘T의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엄습했다. 7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추락했다. 트럼프(Trump) 정부의 관세(Tariff) 정책이 불러온 후폭풍이다. 유럽 증시도 T의 공포를 피해가지 못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은 하루 만에 30원 넘게 내렸다. 5년여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날 코스피는 5.57% 하락한 2328.20으로 마감했다. 낙폭은 지난해 8월 이후 최대로 2300선도 위태로운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코스닥 지수도 5.25% 미끄러졌다. 이날 일본 닛케이 지수는 7.83% 떨어지며 3만1136으로 거래를 마쳤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역대 세 번째 큰 하락 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 증시가 피바다를 이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떨어트린 관세 폭탄은 금융시장을 ‘블랙 먼데이’로 몰아넣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자산시장에 짙게 드리웠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도한 낙폭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주식시장에 긴급 제동을 걸어야 할 정도였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프로그램 매매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일본 오사카거래소도 닛케이 선물 매매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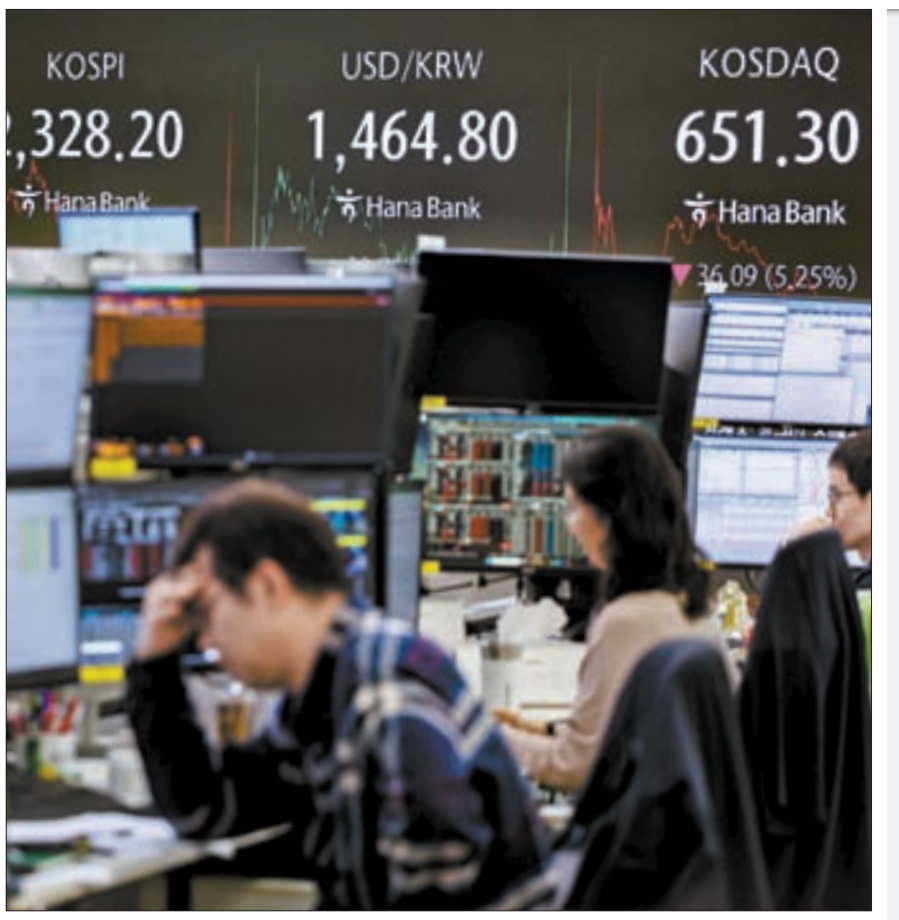
대만 자취안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 하루 낙폭으로 사상 최대다. 지수도 2024년 3월 이후 최저다. 대만 증시는 지난 3~4일 연휴로 휴장한 탓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뒤늦게 받았다.

대만 증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주가도 9.98% 내리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TSMC가 하한가를 기록한 건 약 12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상하이(-7.34%), 홍콩(-13.22%) 증시도 얼어붙었다. 홍콩 항셍지수의 하락률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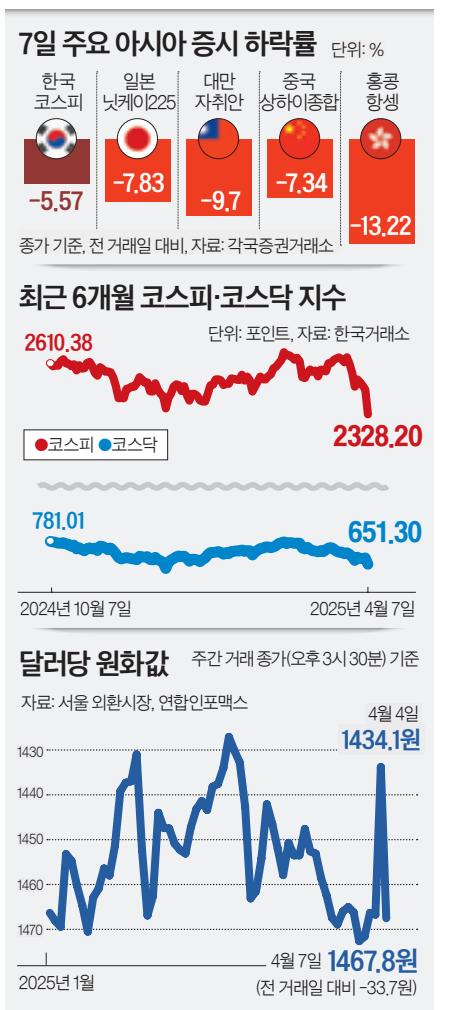
유럽 증시도 이날 급락세로 출발했다. 범유럽 주가 지수인 스톡스600은 전 거래일보다 6% 내리면서 출발했다. 프랑스 CAC40과 영국 FTSE100 지수도 6%가량 추락했다. 독일 닥스(DAX) 지수는 장 초반 하락 폭이 10%에 육박했다. 미국 증시도 개장을 5시간여 앞둔 오후 5시30분 현재 나스닥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급락하면서 개장 전부터 공포를 더했다. S&P500 선물도 4% 넘게 추락했다.

국내 주요 기업 주가도 타격을 입었다. 이날 시총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17%와 9.55% 하락했다. 현대차(-6.62%), 기아(-5.69%) 등 자동차주는 물론 조선주, 방산주 가격도 나란히 큰 폭으로 내렸다.

원화 가치도 급락했다. 달러당 원화값은 이날 전 거래일(1434.1원)보다 33.7원 하락하면서(환율은 상승) 1467.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원화값이 크게 떨어졌던 2020년 3월 19일(-40원)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원화값이 1430원대로 급등했지만, 하루 만에 1460원대로 되돌아갔다.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7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마감했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종가가 표시돼 있다. 전민규 기자



탈출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경제팀은 1기 때와 달리 주식시장보다 미국 국채 금리와 정부 부채에 무게를 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관세 폭탄 여파로 미국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금이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가 주가 하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국방비보다 많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증시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 선거인 중간선거가 1년 반 가까이 남아 정치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금융 당국은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그룹 회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금융지주는 24조5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관세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더 박차를 기하겠다”고 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중심의 경기 부양이 (반등의) 출발점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진호·김남준·허정원 기자

KDI, 넉 달째 ‘경기 하방위험 확대’ 진단

“대외여건 급격 악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발간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2월 전산업생산은 1.2% 증가했다. 다만 이는 주로 조업일수(+1.5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업(-21.0%)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생산 둔화 흐름은 지속됐다. 3월 수출은 전월(0.7%)보다 높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도 5.5% 증가하면서 1~2월의 저조했던 흐름을 일부 만회했다. 다만 1분기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증가폭 축소의 영향으로 2.1%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관세 인상 조치가 본격화하면 기업 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소비 부진흐름도 계속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내부재 소비가 반등했지만,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부진이 이어지면서 1~2월 평균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이 지속됐다. 1~2월 평균 기준 숙박·음식점업(-3.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6%), 교육서비스업(-1.8%)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4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통상 불확실성 등 수출 여건 악화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건설기성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큰 폭으로 감소(-21.0%)하면서 부진이 이어졌다. 고용 둔화도 지속됐다.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월과 유사한 13만6천명을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7만4천명)과 건설업(-16만7천명) 등 주요 업종의 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률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으며, 고용률 상승세도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2.0%)과 유사한 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국민의힘 속전속결 경선 … 4주 안에 대선후보 뽑는다

〈내달 4일〉

선관위 출범 … 위원장에 황우여
주내 후보 접수 뒤 내주 예비경선
홍준표·이준석 대구서 오찬 회동
오세훈, 종교계 만나며 행보 재개

국민의힘이 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을 각각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원내에선 조은희·박준태·이상휘·조지연 의원이 선관위원으로 합류한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5선 의원으로 당에 오래 봉사했던 황 전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황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지낸 당의 원로다. 지난해 22대 총선 패배 직후 비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대선에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선거일로부터 30일 전)이 된다. 산술적으로 27일 안에 경선 일정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후보 접수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예비 경선에 들어간다.

대선주자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빨리 채비를 갖춘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 퇴임식을 가진 뒤 다음 날 상경할 계획이다. 9일엔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라는 책도 출간한다. 책에서 홍 시장은 ▶청와대 복귀 ▶수능 1년 2회 시행 ▶판검사 임용시험 도입 ▶모병제 대폭 확대 ▶5군(軍) 체제 개편 등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특별감찰관 도입, '한국판 FBI' 국가수사국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수사 구조 개편 방안도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언행을 자제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종교계를 찾으며 사흘 만에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한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민의 수준 높은 대처를 보며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정상적인 리더십을 펼쳐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계종 방문 이후 태고종 총무원장인 상진 스님,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찾아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맡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 중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한 전 대표는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이날 오후 경북 울진군의 장례식장을 찾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출마를 위해 8일 국무회의 뒤 사퇴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7일 경기 용인에서 취재진을 만나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지만, 저 자신이 준비도 안 돼 있어 여러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이날 대구를 찾은 이 의원은 홍 시장과 점심을 함께 했고, 지난주엔 오 시장과도 만났다고 한다. 이 의원은 8일 미국 블룸버그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보수 진영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그들은 지금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이 저희 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않는 한, 이번 선거에서 구(舊)보수인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기정·이창훈 기자

검찰, 김건희 피의자 출석 요구
윤 파면 전 두차례 구두로 전달

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 필요성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고 두 차례 구두로 전달했다. 통보 시기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4일보다 앞선 시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검찰은 조만간 소환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81회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명씨는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명씨의 '황금폰(휴대전화와 USB)' 포렌식 등을 통해 김 여사가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듯한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홍준표 '불편한 동거' 경선캠프 차린다

대하빌딩에 한 9층·홍 4층 입주예정
김대중·박근혜·윤석열 캠프 있던 곳

왕새우로 불리는 '대하'의 제철은 3~4월이다. 그런데 대선 국면을 맞아 여의도에서도 '대하'가 상한가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속속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각광받는 장소는 국회의사당역에서 300m 거리에 위치한 '대하빌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대하빌딩 4층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경선 캠프를 꾸릴 예정이다. 홍 시장은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을 치렀을 때도 대하빌딩에 캠프를 마련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하빌딩에 선거 사무실을 가계약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대선일이 확정되면 계약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9층을 사용한다고 한다. 당내에선 "홍 시장과 한 전 대표가 같은 건물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는 소리가 나온다.

보수 진영 대선후보들의 캠프 사무실로 각광받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모습. [중앙포토]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 진영 유력 인사가 대하빌딩을 찾는 건 선거철이 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12층 규모의 대하빌딩은 선거 명당으로 꼽힌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가 대하빌딩에 캠프를 뒀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 후 광화문 이마빌딩에 있던 캠프 사무실을 대하빌딩으로 옮겼다. "대통령이 3명이나 나왔으니 터가 좋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성지원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겠습니다."
aetna Anthem HealthKeepers Plus MOLINA HEALTHCARE Sentara Health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이재명 대선용 싱크탱크 16일 출범 … 500여명 참여한다

〈성장과 통합〉

학자·관료가 중심, 정책 조언 역할
유종일·허민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

대통령 선거일이 사실상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이 대표를 도울 경선 캠프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캠프 조직은 계파색이 옅은 인사가 주축이 돼 이끈다. 당내에선 윤호중(5선·선거대책위원장), 윤후덕(4선·정책본부장), 강훈식(3선·총괄본부장), 김영진(3선·정무총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책 조직도 수면 위로 올라온다. 7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용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성장과 통합'은 당내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정책 조직과 달리 학자와 전직 관료 중심으로 꾸려진다. 당 외곽에서 이 대표를 위한 공약을 개발하는 등 정책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성장과 통합은 '이재명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는다. 유 교수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정책자문단에 참여하며 이 대표와 인연을 시작했다. 이듬해엔 서민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을 이재명 시장과 공동으로 맡았다. 허 교수는 전남대 부총장을 역임한 고생물 전문가로, 지난해 11월 전남대의 윤석열 정부 규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연구원장과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는 비상임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장 원장은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마크 첸 오픈AI 최고연구책임자(CRO)와 만나는 등 국내 AI 연구의 권위자로 꼽힌다. 지난해 유엔 군축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김 교수는 국방 전문가다. 성장과 통합엔 총 500여 명의 학자와 전직 관료가 참여한다. 경북 성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성장과 통합은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유 교수는 지난 2월 칼럼에서 이 대표의 성장 중심 '우클릭' 정책을 지지하며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논쟁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AI의 전면적인 활용"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장병탁 원장이 공동대표에 참여한 배경이다.

현재 민주당엔 대선 공약 작업을 하는 다양한 정책 조직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 공식 조직인 정책위원회에선 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산하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질문Q'는 공약의 밑그림을 담은 '녹서'(그린 페이퍼, 정책 결정 전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담은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 최고위 산하 '집권플랜본부'(본부장 김민석 최고위원)와 이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경제연석회의도 공약 제시를 위한 정책작업을 진행 중이다.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는 한 조직에 정책의 전권을 맡기지 않는다. 여러 보고를 받고 그중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탄핵당한 당은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발언 영상을 보고 있다.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

※이재명 대표 사퇴 후 발족

윤호중	강훈식	윤후덕	김병기	김영진
선거대책 위원장	총괄 본부장	정책 본부장	조직 본부장	정무총괄

더불어민주당 공약 준비 정책 조직

※조직의 주요 인사와 준비작업 순

정책위원회
진성준 정책위 의장
당 공식 정책 조직으로 공약 정리작업

민주연구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박태웅** 모두의질문Q 의장
'모두의질문Q', 대선 공약 밑그림 담은 '녹서' 작업

집권플랜본부
김민석 최고위원, **주형철** K먹사니즘 본부장
K먹사니즘 본부 중심으로 경제성장 전략 준비

민생경제연석회의
인태연 공동의장
이 대표가 공동의장 맡아 지난해 11월부터 정책 작업

성장과 통합
유종일 KDI 교수
학자 중심 조직으로 당 외곽에서 공약 개발

이재명, 일단 '스몰딜 개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통한 권력구조 개헌 제안을 거절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이 대표는 그 대신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의 절차적 장애물로 거론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개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18 정신 전문(前文) 반영 ▶계엄 요건 강화 등 '스몰딜' 개헌만 이번 대선에 맞춰 추진하고, 권력구조 개헌은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고, 4년 중임제도 동의한다"면서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과 관련 개헌 의제들을 언급한 뒤, 이 대표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는 전날 우 의장의 제안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고위 참석자는 통화에서 "비공개회의 때 이 대표가 그간 우 의장과 나눈 개헌 논의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다"면서도 "대선까지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과 내용상 쟁점이 적지 않다는 점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최고위에선 우 의장이 주문해 온 개헌특위 참여 여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이 대표가 "개헌 논의는 내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민형배 의원)이란 강경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개헌 반대론자'라는 낙인을 비켜가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청래·추미애·양문석 등 5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부터 일제히 우 의장을 공개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일단 '내란 종식 우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했을 것"이라며 "다른 잠룡들이 일제히 요구하면 개헌의 폭도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심새롬·강보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개헌' 동참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국면에 국민의힘이 탑승했다. 7일 대선과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통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위에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국회' 견제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개헌특위 소속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국회 의석 180석과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무한 권력이 된다"며 "의회 해산권을 포함한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호헌세력 이재명 민주당의 사실상 개헌 거부"라며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내란 프레임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늦추려는 건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부름에 민주당도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주자들은 이 대표의 내란 종식보다는 우 의장의 개헌론에 동참하는 기류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페이스북에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다. 개헌은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적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난 15년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개헌 논의가 누적된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하준호·장서윤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오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내가 있어, 지금의 윤 있다 김 여사가 매번 말하더라"

전 장관 "고비마다 부부 함께 결정"
제2부속실 폐지 '여사 리스크' 자초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에도
윤 "차라리 날 탄핵하라 해" 격노

1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 지난해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김 여사는 마포대교를 깜짝 방문했다. 3 2023년 11월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구조견을 쓰다듬는 김 여사. 김현동 기자, [연합뉴스]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해라."

'김건희 특검법' 관련 내용을 보고했던 대통령실 수석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들었다는 얘기다. "문재인 검찰이 이미 아내를 탈탈 털었다"고 격노하는 대통령 앞에서 그 어떤 참모도 특검법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을 제대로 거론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정과 상식'은 김 여사 문턱 앞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윤 "일등 공신은 아내"

"여사가 매번 하는 말이 있어. 고비고비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결정하고 판단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종종 폭탄주를 즐겼던 전직 장관 A씨의 말이다. 사실이는 김 여사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일등 공신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 내 아내일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정권의 공동 창업자이자 국정 파트너, 이런 둘의 관계는 국정에 부담으로 돌아왔다.

2012년 51세 검사 윤석열은 띠동갑 연하인 전시기획자 김건희와 대검찰청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결혼에 반대하는 부친을 설득하기 위해 동창들을 동원했을 만큼 김 여사를 향한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은 컸다. 시간을 분초로 쪼개 썼던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신의 징계 문제로 몸져누운 김 여사를 보려고 점심시간에도 집에 들렀다. 요리사가 돼 제육볶음과 낙지볶음을 만든 뒤에야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는 스토리가 유명하다.

#'제2부속실 폐지'란 패착

김 여사는 대선 때부터 화제를 몰고 다녔다. 허위 경력 의혹에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거듭된 논란에 정무팀을 붙이자는 참모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 말도 안 듣는 사람이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버럭 화를 냈다. 김 여사는 점점 성역화됐다.

"영부인이라는 말 쓰지 맙시다. 무슨 영부인~." 2021년 12월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영부인을 위한 별도 조직은 불필요하고, 김 여사는 정치를 싫어해 보좌 조직도 필요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 정권이 출범하자 김 여사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섞여 제1부속실을 통해 내려왔다. 거부하기는 더 어려워졌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의 힘은 점점 더 세졌다. 제2부속실 폐지가 '김건희 리스크'의 기폭제가 돼 버렸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 여사의 광폭 행보에 용산엔 '김건희 라인'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정작 출범한 건 계엄 겨우 한 달 전이었다.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갈수록 태산이었다. 소위 명품백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기 어렵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총선 참패를 걱정하는 참모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선거 져도 상관없다"고 했다.

총선 참패 뒤 여사 라인 참모들발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돌았다. 낌새도 못 챈 공식 라인은 보도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측에 "시장님이 건의하신 것이냐"며 헛다리를 짚었다.

"주말이 무섭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주말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만 다녀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박태인 기자

일본도 주목한 윤의 '아메리칸 파이'… 정치 실종에도 '외치'는 성과

한·미·일 정상회담, 삼각협력 강화
체코 24조 수주 등 원전생태계 복원

지난해 4월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3년 4월 미국 국빈 만찬 행사에서 불렀던 돈 매클린의 '아메리칸 파이'에 대해 언급했다. 신문은 기시다 전 총리의 농담 섞인 영어 연설을 칭찬하면서도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른 만큼의) 임팩트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진 행사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팝송을 부른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이웃 일본 언론도 부러워한 셈이다.

아메리칸 파이는 학창 시절 윤 전 대통령의 애창곡인 동시에 2015년 뇌 종양 투병 끝에 숨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피아노 연주에 맞춘 1분간의 열창이 끝나자 만찬장에 모인 내빈 모두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스타일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다.

이렇듯 탄핵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공과는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초보 정치인'으로서 거대 야당을 상대하다 사실상 정치의 진공 상태를 불렀던 '내치' 분야와 달리 '외치'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그 결과물인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대표적이다. 당시 3국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했고, 이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의 상징이 됐다.

전례 없는 한·미·일 삼각 협력 성사의 토대는 오랜 난제였던 한·일 관계의 정상화였다. 2023년 3월 윤 전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결단해 한·일 관계에 숨통을 틔웠다. 셔틀 외교 또한 12년 만에 복원됐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한·미 동맹 강화의 디딤돌이 됐다. 2023년 4월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간 핵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윤 전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때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핵 자산에 북핵 대응 임무가 부여돼 사실상 '한반도 상시 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이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되거나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한 것도 안보 측면의 성과로 꼽힌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실시되던 한·미 실기동 야외훈련(FTX)을 2022년 '연대급'으로 확장했고, 2023년 '사단급' 규모로 격상했다. '훈련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며 대규모 한·미 FTX를 5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수출이 6837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고금리와 고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악조건 속에서도 2022년의 종전 최고 기록(6835억8500만 달러)을 2년 만에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으로 인해 올해 수출 전망은 지난해보다 어두운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 한국수력원자력의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 체코전력공사(CEZ) 대변인이 최근 "계약 문안 조율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달 말에는 최종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도 성과다. 비록 윤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돼 있던 지난달 20일에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단일안을 내놓는 등 정부의 노력이 개혁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다만 의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의료개혁은 결과적으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대란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지난해 4월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집단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원상복귀'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허진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2 M
Corner Lot
Many Upgraded

웃브리지 타운홈

$495,000
방3, 화3.5
Lake Ridge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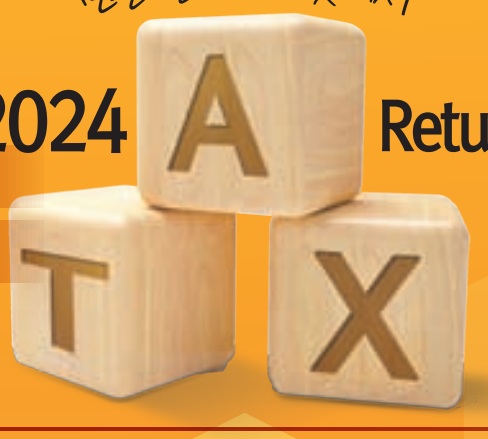
COMING SOON 리스팅
굿 로케이션 집 수리중입니다.
* Annandale 싱글 홈 $890,000
* Springfield 싱글 홈 $800,000
* South Riding 싱글 홈 $1,2M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4 Tax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우리말 바루기

햇병아리, 해쑥, 햅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파릇파릇 나무가 새 옷을 입고 햇병아리들이 나들이를 나오는 모습을 보니 봄이 완연하다. 봄은 이렇게 햇것들로 가득하다.

'햇병아리, 햇것'에서처럼 해마다 나는 물건으로 그해에 처음 나오는 것을 이를 때 접두사 '햇-'을 붙인다. 햇과일, 햇곡식, 햇나물 등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다.

봄에 제철을 맞는 '쑥'에 접두사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햇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쑥'이 바른 표현이다.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ㄲ, ㄸ, ㅃ, ㅆ, ㅉ)나 거센소리(ㅊ, ㅋ, ㅌ, ㅍ)로 날 경우엔 '햇-'이 아닌 '해-'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쑥, 해콩, 해팥 등처럼 적는다.

그렇다면 '그해에 새로 나온 쌀'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온라인상에는 '햇쌀'이라고 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쌀'이 된소리(ㅆ)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문 규정을 떠올리며 '해쌀'로 써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햇쌀'과 '해쌀' 모두 잘못된 표현.

'쌀'의 경우 원래 중세 국어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ㅂ'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쌀'에는 'ㅂ'을 첨가해 '햅쌀'을 바른 표기로 삼고 있다. '벼+씨'를 '볍씨'로, '조+쌀'을 '좁쌀' 등으로 표기하는 것도 같은 사례다.

정운찬 칼럼

트럼프의 관세폭탄, 케인스의 국가간 동반성장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정책은 우방을 비롯한 모든 교역국에 경제적 비용을 강제한다. 나는 이 정책을 보면서 J M 케인스의 『평화의 경제적 귀결, 1919』을 떠올렸다.

재무성 관료였던 37살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1919년 6월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에 영국 대표로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승전국에 대한 패전국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였다. 승전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은 독일에 1320억 골드 마르크(2025년 기준 60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배상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히려 승전국이 패전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전국 지도자들은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일의 배상금 문제를 베르사유 조약에 담았다.

케인스는 재무성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 후 베르사유 조약을 비판한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었다.

당시 프랑스, 영국, 미국은 모두 독일의 경제적 재건을 반대했다. 적성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게 해야 케인스는 왜 이런 식의 고전적 평화 방식에 반대했을까? 케인스에게 근대자본주의 이후의 역사란 국가 간 '상호의존적 협력에 의한 경제발전'의 과정이었다. 그는 1870년 알자스-로렌 지역의 영토권을 둘러싼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승전국 프로이센은 카르타고식 평화를 위해 패전국 프랑스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렸다. 그 결과 패전국 프랑스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승전국 프로이센도 배상금으로 일시적 호황은 누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불균형과 1873년 대불황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빠졌다. 한 나라의 빈곤과 인플레이션은 인접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케인스는 이러한 상호의존적 경제체제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가혹한 배상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독일에 전무후무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고, 그다음엔 사회주의의 지배를 받거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후 독일은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을 거쳐 궁극적으로 극우화된 나치 정당이 집권했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 미국은 이러한 교훈을 살려 패전국 독일에 가혹한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1948년에는 오히려 과거 케인스의 주장을 따라 우호적인 전후 복구와 대외원조를 추진하는 '마셜 플랜'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고,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했다. 이러한 귀결을 이미 예견했던 케인스는, 승전국과 패전국을 모두 포용한 동반성장과 번영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관용을 주장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건국 이후 미국은 원래 자유무역을 주도하던 나라가 아니었다. 신생 미국은 국민에게 소득세를 걷는 대신 외국 제품에 관세를 매겨 세입을 충당했고, 독립 후 100년간 연방정부 재정을 80% 이상 관세로 보전했다. 그 후 1930년대까지 최대 60%에 가까운 높은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세계 자유무역을 견인하면서 서비스업에서는 흑자를 냈지만, 제조업에서는 공동화(空洞化)를 겪고 적자가 쌓여가는 나라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초기처럼 보호무역으로 제조업을 부흥시켜 다시 황금기를 이루겠다는 계산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립주의 시대에 작동했던 관세정책으로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얽힌 공급망 체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미국을 구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관세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다자간 국제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이아침에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전성기

김현실
수필가

도라 했는데, 그 근거를 뭐라 했는지는 기억나질 않는다. 가정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젊음이 있어 좋다고 하지 않았을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땀 흘리며 아이들이 성인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기까지 쉽지 않았다. 그 길에 꽃밭만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 눈물을 수없이 받아내며 40, 50대를 통과했다.

백세 시대를 맞아 105세 된 김형석 교수에게 시선이 간다. 그의 저서 '백 년을 살아보니'는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창 머물렀다.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 등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는 백세를 살아보니 60대, 65세가 가장 행복했고 빛났다고 토로한다. 글을 잘 썼고 생각하는 힘도 고매했다고 고백한다. 어느덧 내가 그 나이가 되었다. 가장 행복하다는 나이라는데 공감한다.

최근 일이다. ESL 수업을 같이 받는 70대 언니들에게 물었다. 전성기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은퇴하고 공부하는 지금이 좋다며 함박웃음을 건넸다. 건강이 허락하여 다양한 취미 활동과 함께 오롯이 당신 삶에 집중하는 지금이 좋단다.

과실나무는 열매 맺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인생 열매 맺는 노년기가 가장 가치 있는 때라니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환갑을 치르고 난 후, 나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한 살배기라고 주위에 말하곤 한다. 마주하는 좋은 때, 노년기를 잘 가꾸려 한다. 나답게 살아갈 마지막 기회라 여기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사용하려 한다.

70세를 넘기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를 영상으로 만났다.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를 멋지게 연주하는 90세를 훌쩍 넘긴 그분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인생은 늘 'ing',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전성기라고 말하는 듯싶었다.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2025 주택 동향 (부동산 시장 불안정)

금리인하의 불확실성, 주택 매물 부족,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여전히 부정적.

주택 구입 전략 !

1. 주택 대출 금액을 알아본다.
   (세금보고서 2년치)
2. 주택 모기지 납입능력 금액을 책정한다.
3. 구입금액설정후 구입지역을 설정한다.

* 여러각도에서 같이 고민해 드리는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셀러 집 판매 전략 !

★ 아직도 매매 물량이 부족한 시기라 집 팔기 좋은 시점입니다.

★ 셀러를 대변하는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연락주세요.

매매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랜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 화장실2.5, 랜트 수익 $3,000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 화장실3.5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랜트 $3,600

렌트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챈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톤다 콘도 방2 + 화장실 2, 즉시 입주

힘든 세입자나, 밀린 랜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중앙일보건물2층 —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옆 —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 410.480.0100 • 800.564.4429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UNITED AIR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끝!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 유럽유심 $50 / eSIM 판매 시작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채용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고품격 고국일주 1차 4자리 남음
4/15~4/25 10박11일 $2990+항공
정통 서유럽
4/23~5/3 10박11일 $3590+항공
정통 동유럽 마감임박
4/30~5/6 6박7일 $27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마감임박
4/30~5/13 13박14일 $45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5/6~5/16 10박11일 $29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마감임박
5/5~5/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5/13~5/23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5/20~5/30 10박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한국어)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6/21~7/4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4 10박11일 $4390+항공
독립기념일 캐나다 록키 6자리 남음
6/25~6/30 5박6일 $2290(항공포함)
동유럽
6/28~7/5 7박8일 $29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6/30~7/3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8/02~8/15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8/8~8/13 5박6일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8/21~8/31 10박11일 $2990+항공/오션뷰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8/29~9/1 3박4일 $1290+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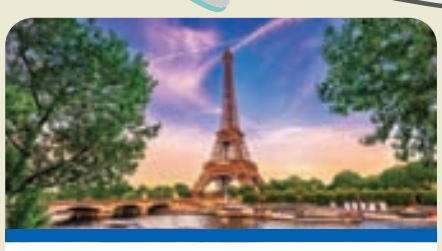
알래스카 크루즈 9/8~9/15 7박8일
$2190(항포/인사이드), $2590(항포/가려진 발코니)
정통 서유럽
9/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9/30~10/6 6박7일 $2790+항공

독일 일주
10/2~10/15 13박14일 $56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5~10/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프랑스 일주
10/16~10/29 13박14일 $5690+항공
지중해 크루즈 10/17~10/26 9박10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3490+항공 부터~/오션뷰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10/21~10/29 8박9일 $22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8~11/7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7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일본 크루즈 11/3~11/14
11박12일 $2490+항공 부터~/인사이드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11/11~11/24 13박14일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1/14~11/24 10박11일 $2980+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6~11/30 4박5일 $11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12/23~12/29 6박7일 $2490+항공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정통 서유럽
1차 4/23~5/03 2차 5/20~5/30
3차 7/08~7/18(여름방학 특선)
4차 9/09~9/19 5차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그리스 & 튀르키예
1차 5/6~5/16 2차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스페인 & 포르투갈
1차 5/13~5/23 2차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원더풀 전문 에이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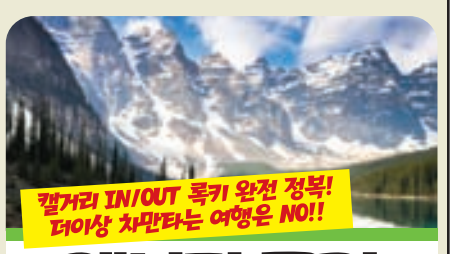
레나고 윤태웅 그레이스조 세라강

애난데일	센터빌	엘리컷시티
미세스신 케이티김	엘렌리 켈리서	홍수향 해나문

옐로스톤
1차 5/23~5/26(메모리얼 특선)
2차 6/30~7/03(독립기념일 특선)
3차 8/29~9/01(노동절 특선)
3박 4일 $1,290+항공

스위스 일주
세계인의 로망, 환상의 프랑스 일주는 가장 여유롭게, 가장 디테일하게 관광할 수 있는 상품!
6/10~6/18 | 8박 9일 $4,590+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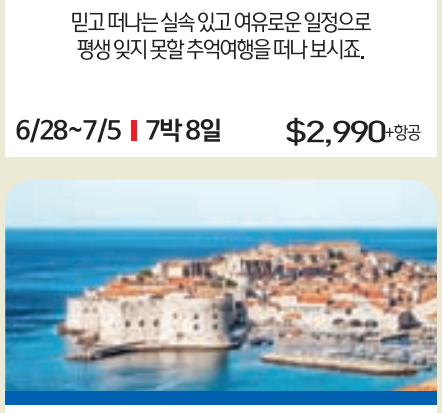
북유럽 4개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까지 보는 최고의 일정
1차 6/24~7/4 2차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캐나다 록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의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캐나다!!
1차 6/25~6/30(독립기념일 특선)
2차 8/08~8/13(여름방학 특선)
5박 6일 $2,290(항공포함)

동유럽
믿고 떠나는 실속 있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여행을 떠나 보시죠.
6/28~7/5 | 7박 8일 $2,990+항공

알래스카 일주
전 세계에서 하루가 마지막으로 시작되는 곳 미국에서 가장 신비한 마력을 가진 미지의 땅 알래스카!
8/14~8/20 | 6박 7일 $2,990(항공포함)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9/30~10/13 | 13박14일 $4,5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유럽의 여러 가지의 루트로 출발해 최종 목적지 스페인의 갈리시아 주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는 도보순례.
10/28~11/7 | 10박11일 $3,590+항공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품격 고국일주

탑여행사 한국지사가 직접운영합니다

10박 11일 $2990+항공 4자리 남음
1차 04/15~04/25
2차 06/17~06/27
3세대 투어
영어&한국어 가이드

고국여행과 일본여행을 한번에!!

3차	4차	5차	6차
09/16~09/26 +	10/14~10/24 +	10/21~10/31 +	10/28~11/07 +
오사카 | 3박 4일	동경 | 3박 4일	일본크루즈 | 11박12일	동경&오사카 | 5박6일
9/27~9/30	10/25~10/28	11/3~11/14	11/8~11/13
실속 $1299+항공	실속 $1299+항공	인사이드 $2490+항공 부터~	실속 $1999+항공
디럭스 $1799+항공	디럭스 $1799+항공	오션뷰 $2720+항공 부터~	디럭스 $2699+항공
		발코니 $3160+항공 부터~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Together in Korea (2인이상 출발보장)
- 6박 7일 월출발 내륙 — 한 $1499+항공 / 영 $1699+항공
- 3박 4일 월출발 서남권 — 한 $829+항공 / 영 $929+항공
- 4박 5일 화출발 동해안 — 한 $989+항공 / 영 $1119+항공
- 2박 3일 월출발 제주도 — 한 549+항공 / 영 $749+항공
- 6박 7일 월출발 제주+동해 — 한 $1549+항공 / 영 $1879+항공
- 9박 10일 월출발 전국일주 — 한 $2199+항공 / 영 $2599+항공

동남아 연합투어
- 3박5일 방콕/파타야 $490+항공
-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690+항공
- 3박5일 다낭 $450+항공
- 3박5일 나트랑/달랏 $450+항공
- 3박4일 대만 $690+항공
- 3박5일 싱가폴 $850+항공

일본 연합투어
- 3박4일 동경 $1149+항공
- 3박4일 오사카 $1149+항공
- 5박6일 동경&오사카 $1899+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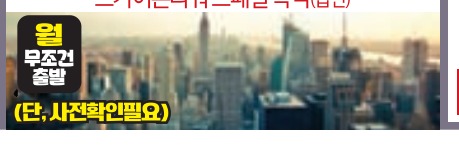
TMCI Total Medicare Connection Institute
고국건강검진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Primary) 남 $1340 /여 $1660
서울대병원(기본검진) 남/여 $940
세브란스(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동계시즌 출발 보장
*당일관광 (소수인원 출발 가능)

미동부
5박 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백/플래츠버그/뉴욕
로맨틱시티 겨울 낭만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대자연의 아름다운 설경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월 출발
- 알래스카 6박 7일 $1790+항공 매주 월 출발
-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월 출발
-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매주 월,금 출발
-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출발
-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5/23, 7/4, 8/29)
-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탑여행사 TOPTRAVEL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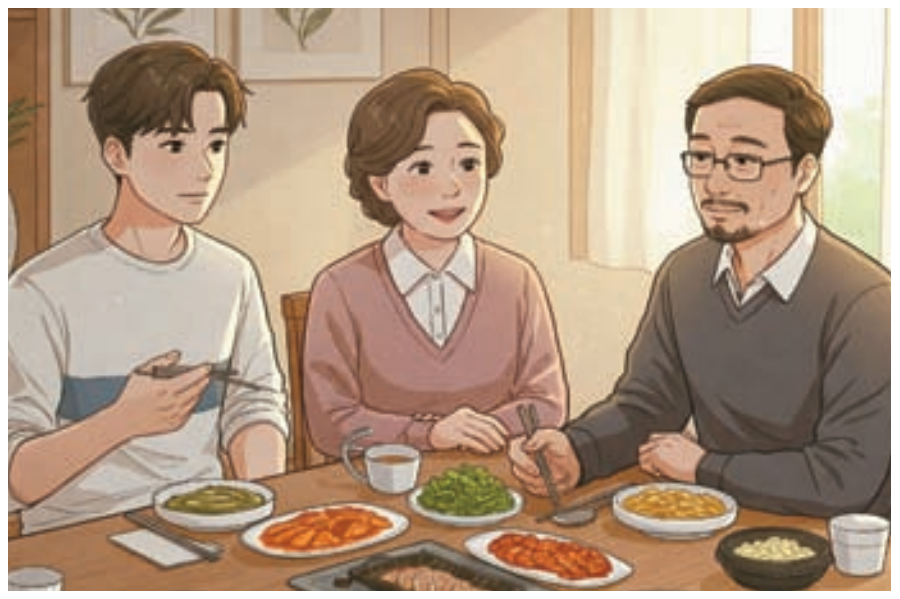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열린 대화 통해 적절한 계획 세우게 도와야

대입에서의 학부모 역할

대입은 당사자인 자녀가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자녀의 무능, 무지, 무력에 한숨이 나오기 마련이다. 자녀의 대입을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부모는 그저 제때 학원비 내주고 밥 먹여주는 것말고는 어떤 역할이 없는가. 전문가들은 직접은 아니지만 나름 부모의 역할을 조언한다. US뉴스가 정리한 것을 소개한다.



대입을 앞둔 자녀와 식사나 함께 차를 타는 동안 대학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과정에 대해 잔소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Gemini생성]

학부모가 자녀 대입을 위해서 플랜을 짜고 실행안을 만들고 함께 뛰어줄 필요는 없다.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 간혹 주류 신문에 등장하는 '호랑이 엄마'는 그저 전설일 뿐이다. 가정 경제가 풍족해서 가정교사를 두지 않는 한 경제적 여유로 자녀의 대입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입에서 부모의 역할을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계획에 참여하고 격려하는 것,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것, 자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녀 입장에서는 원서 마감일을 확인하는 과정 조차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입학 일정과 주요 이정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부분 학부모는 이제까지 세상살이의 경험에 비추어 중요한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유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자녀가 대학 합격의 왕도를 여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초기 단계: 계획

대학 계획은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 자녀와 열린 대화를 나누어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1. **카운슬러와의 만남**: 자녀가 고교에 들어간 9학년 때부터 교내 카운슬러와 대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라고 조언한다. 선배들도 많은데 9학년이 나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녀의 단견이다. 전문가들은 "대학들은 9학년부터 졸업 학년까지의 성적 추이를 살펴본다"며 "코스워크와 GPA 유지 또는 향상에 대해 카운슬러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2. **대학 리스트 작성 시작**: 자녀들은 지원하고 싶은 학교를 신중하게 찾아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 규모, 위치, 학문적 제공 사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주위에 앞서 대학에 진학한 친지와 친지 자녀의 조언도 유용하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유용한 일 중 하나가 자녀의 시야를 열게 도와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UC같은 초대형 스쿨부터 소규모인 리버럴 아츠 칼리지까지, 집에서 가까운 학교부터 지리적으로 항공편으로 가야 하는 학교까지 리스트에 넣어야 한다. 특히 집 근처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익숙한 환경에 머물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기회를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

◈지원 과정: 로드맵

부모는 에세이와 추천서 같은 주요 지원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험 점수와 관심 표현 같은 다른 입학 고려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1. **대학 에세이**: 에세이는 입학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녀가 11학년 봄부터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자녀의 현실과 경험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부모다. 생활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미리 나누면 좋다.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대학 에세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2. **표준 시험 (SAT/ACT)**: 많은 대학이 표준 시험을 선택제(test-optional)로 결정했으므로 SAT나 ACT를 볼지 여부를 가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표준 시험을 선택하는 각 대학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부모와 학생은 특정 학교가 시험 선택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시험 점수를 제출하거나 생략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권장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은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지만 장학금 결정 기준의 하나로 사용한다.

특히 표준 시험은 팬데믹 기간의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3. **대학에 관심 표현**: 더 많은 학교가 입학 결정 요인으로 '관심 표현'(demonstrated interest)을 사용하고 있다. 자녀가 열정을 보이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 표현의 실례로는 캠퍼스 방문, 입학 카운스러에게 이메일 보내기, 대학 박람회 참석, 대학 웹사이트에서 관심 양식 작성 등이 있다. 만약 준비가 됐다면 특정 학과의 특정 전공, 특정 교수에 대한 관심와 흔적을 남겨두는 것도 좋다.

4. **자녀의 스트레스 관리**: 입학 과정은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대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나 의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자녀를 압도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나 함께 차를 타는 동안 잠시 대학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끊임없이 그 과정에 대해 잔소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경험에 대해 가진 비전이 자녀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것에 맞추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린 대화 라인을 유지하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원활해진다.

» 2면 '열린 대화'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하버드 합격 공식 성적+과외 활동"

조기전형 입학 조이스 곽 양

AP과목 15개·SAT 1590
인턴, 세계 학술대회 참석
생물학 전공 의사가 목표

세계적 명문대학인 하버드에 조기전형으로 합격한 한인 여학생이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주인공은 랜초 버나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조이스 곽(사진) 양. 아직은 여고생의 앳된 미소를 가진 곽양은 오는 9월 하버드대 분자 세포 생물학과(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입학을 앞두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곽 양은 모두가 인정하는 수재다. 또래 우수 학생이 5~8개 정도 듣는 AP 과목을 15개나 수강했고 11학년때 PSAT 만점, 12학년 때는 SAT 1590점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없어진 곽 양은 지난 2023~2024학년도에는 팔로마 칼리지에서 미적분/해석 기하학과 선형대수학 과목을 수강, 자신보다 서너 살이나 많은 대학생들과도 당당히 경쟁해 A학점을 받았다.

이처럼 화려한 성적을 자랑하는 곽 양이지만 대학 진학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어린 시절 집에서 한국어만 허락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영어 학습이 늦은 탓에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다. 또 유난히 수줍음이 많은 성격으로 인해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적응에 시간에 오래 걸리기도 했다.

곽 양은 하버드 조기합격의 비결로 다양한 인턴 및 교과외 활동을 꼽기도 했다. 2023~25년 샌디에이고 주립대

담배 및 환경센터의 로워 실험실에서 인턴십을 하며 수많은 논문을 읽고 직접 실험에도 참여했다.

또 팔로마 병원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합성 생물학 대회인 '아이젬(IGEM)'에서 학교를 대표해 회장직을 수행하며 유전자 조작, DNA 합성, 생물학적 시스템 설계 등을 통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도 했다.

하버드 입학으로 생전 처음 동부 지역을 가게 됐다는 곽 양은 앞으로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눈 빛이 반짝였다. 또 입학 후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는 곽 양은 자신감도 내비쳤다.

곽 양은 물론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새로운 친구도 마음껏 사귀고, 사랑하는 바이올린 연습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글= 박세나 기자·사진= 정호 작가

» 1면 '열린 대화'에서 이어집니다

◈자금 조달 과정: 대학 비용 마련

많은 학생과 가족에게 대학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방 재정 지원, 장학금,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예전에 누구나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당시에는 학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다양해지면서 대학 비용 충당도 다양해졌다. 초기에 학부모는 대학 비용을 재정적으로 도울지 결정해야 한다. 9학년이나 10학년 때 부모는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부모가 자녀 교육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자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보이며, 다음 단계에서 재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된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계산하므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규모를 가능한 한 일찍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 기여액(부모 부담금)은 대개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AFSA)를 기반으로 한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로 계산된다.

1. FAFSA: 전문가들은 재정 지원 과정에서 초기에 겁먹지 말고,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로 FAFSA를 작성하라고 추천한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과 재정 지원이 있다. FAFSA를 작성해서 신청하기 전까지는 누가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FAFSA를 작성할 때 부모와 학생은 가족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별거 중인 부모라면 부모 결혼 상태 섹션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오류를 피하기 위해 지침을 찾아서 작성한다. FAFSA 작성은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2. 장학금과 보조금: 장학금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직장에서부터 지역적으로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다양한 단체, 커뮤니티 아웃리치 센터, 기업들이 장학금을 제공한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부 파트 타임 잡에서는 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당수의 주에서 그랜트를 제공하고 있다.

◈결정의 시간: 맞는 대학 선택

자녀가 지원한 학교들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대학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요소가 작용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학생에게 맞는 적합성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학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자녀가 주도하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맞는 것을 찾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적합성은 관심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 학업 및 개인 지원 서비스, 학생 구성, 캠퍼스 생활의 질 등을 포함할 수 있다.적합성에 초점을 맞추면 자녀가 대학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대학 준비: 마지막 단계

대학으로의 진학은 학부모와 자녀 모두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 자녀가 대학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좋은 가족 시간과 유대감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과도하게 계획하거나 일정을 꽉 채우지 말아야 한다. 곧 대학생이 될 자녀들이 약간의 여유 시간을 갖고 여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장려해야 한다. 새 둥지를 떠나는 새끼를 떠나 보내는 어미새의 역할이다. 자녀들은 몇 달 안에 독립을 마주하게 된다.

장병희 기자

일리노이, 대학 편입 쉬워진다

앞으로는 커뮤니티 칼리지서 일리노이 주립대학으로의 편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일리노이 주립대(University of Illinois)는 2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40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선발해 이들이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편입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과 진로 상담, 재정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재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정하고 있다.

첫 번째 시범 프로그램은 2026년 봄 학기부터 시행되고 두 번째는 2027년 봄 학기로 예정돼 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이 시범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한 뒤 확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리노이 주립대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일리노이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함께 학생들이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의 경력에서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학점을 따려는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민 1세대와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다. 실제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의 81%는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31%의 학생만이 편입에 성공하고 있어 시범 프로그램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번 봄 의회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

LA서 한국 미술 거장 만난다

대한민국예술원 LA특별전
김환기·천경자 등 17인 참여
10일~5월 15일 LA문화원

LA 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신수정)과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문화원 갤러리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예술원 LA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예술원은 1954년 개원 이래 한국 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온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화예술 기관이다. 2017년부터 회원 작품전(미술전)의 해외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원류를 소개하고 있다.

신수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미술가들의 작품이 LA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한국미술의 정통성을 이어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추구해온 작가들의 열정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LA 전시는 한국 미술 거장들의 유산과 현재 활동 중인 예술원 회원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기회다.

이번 특별 전시에서 이종상·홍석창·이철주(한국화), 윤명로·유희영·박광진·김숙진·정상화·김형대(서양화), 전뢰진·최종태·엄태정·최의순(조각), 이신자(섬유), 강찬균(금속), 조정현(도예), 윤승중(건축) 등 총 17명의 예술원 미술분과 회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천경자·서세옥(한국화), 김환기(서양화) 등 작고한 회원의 작품을 통해 한국 현대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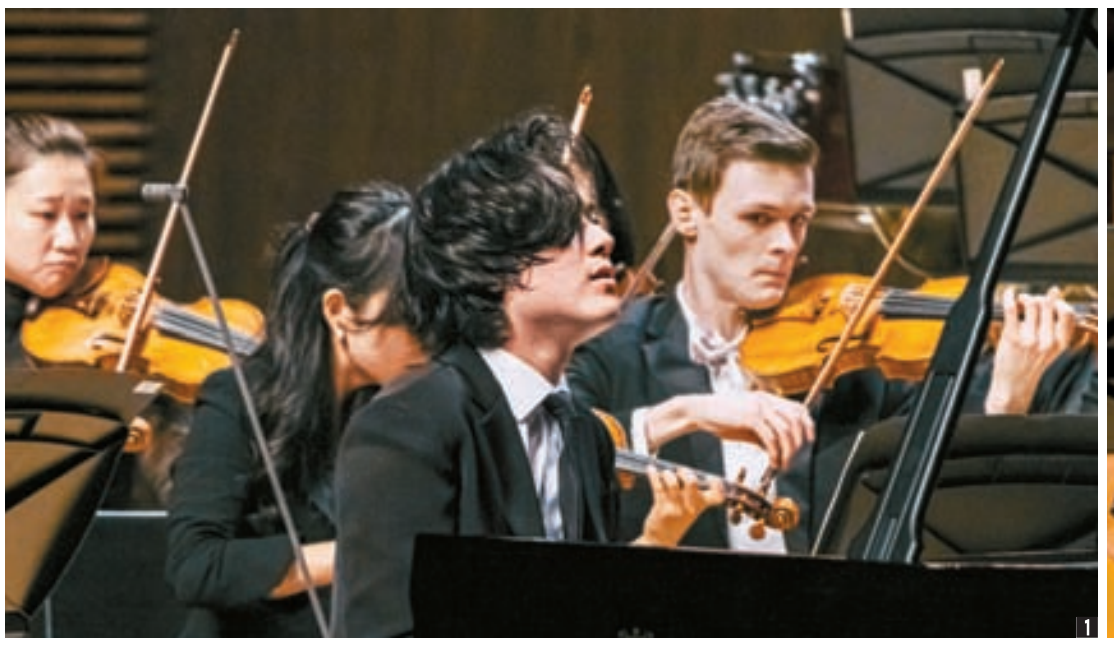
김환기(1913-1974)의 '무제'(1968년작)는 뉴욕 시기 특유의 점화 기법을 통해 인간과 세계,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

천경자(1924-2015)의 '여인상'(1985년작)은 그의 대표적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여인 초상화 중 하나로, 나비와 열대식물이 배치된 화면 속에서 신비롭고 원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은영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져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최대보상
개인상해 보상청구
Chapter 7: 개인 파산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1 지난달 28일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에서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을 국내 초연으로 선보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2 1일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개막 공연에서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벨과 서거 50주년을 맞은 쇼스타코비치를 연주한 김건 지휘자와 창원시향. [사진 통영국제음악재단·예술의전당]

임윤찬 손 따라 흐르는 봄

플라톤이 그랬다. 음악은 우주에 영혼을, 정신에 날개를, 상상력에 비상을, 그리고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봄이 되면 클래식 축제가 기지개를 켜는 것도 겨우내 움츠렸던 영혼을 깨우는 힘이 음악에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아시아의 잘츠부르크페스티벌'로 불리는 통영국제음악제는 과연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라흐마니노프 2번을 협연한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TFO)의 개막공연부터 통영은 활기로 가득찼다. 임윤찬이 종지기가 되어 먼 곳에서부터 밀려드는 파도와 같은 '타종'으로 클래식 축제 시즌의 대항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다. 때마침 통영에선 벚꽃이 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었다.

유주현 기자

20주년을 맞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시그니처는 매년 윤보선 고택에서 열리는 고택음악회다.

2002년 시작해 아시아 최고의 현대음악축제로 성장한 통영국제음악제의 올해 열기는 유별나다. 음악제의 정체성인 현대음악가 윤이상 30주기이기도 하지만, '통영의 아이콘'이라 할 임윤찬이 상주연주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2019년 통영에서 열린 윤이상콩쿠르에서 15살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하며 존재감을 알린 뒤 어느덧 세계를 누비는 연주자로 발돋움한 임윤찬이 금의환향한 셈이다. 진은숙 예술감독은 "임윤찬에겐 통영이 고향 같은 곳이라 친정에 오는 느낌으로 기쁘게 함께했다"고 밝혔다.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당시 임윤찬은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주에 대한 소망을 말해 주목받았는데, 지난달 30일 리사이틀 프로그램이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었으니 더욱 특별했다.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한 임윤찬 리사이틀 포스터. [사진 통영국제음악재단]

스무 살의 골드베르크 질주

'58초 컷 매진'을 기록한 임윤찬의 골드베르크는 과연 달랐다. 15개의 야트막한 산길을 걷고 15개의 찰랑이는 물길을 건너 탄생에서 죽음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고요히 관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골드베르크의 연주법이라면,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은 미지의 바다와 같은 인생의 길들이 궁금해 미치겠다는 듯 격렬한 질문을 던졌다. 때론 포효하고 질주하는 사자처럼 갈기를 휘날렸고, 때론 달콤한 꿈을 꾸듯 피아노를 애무했다.

어쩌면 300년 전 사람인 바흐와 밀당을 하며 한바탕 2인무를 추는 느낌이었는데, 음악학자 진회숙은 "임윤찬의 로맨틱한 해석도 좋았지만 새삼 후대 연주자들에게 주관적인 해석을 열어놓은 바흐가 위대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혹시 음악제란 죽은 작곡가들의 영혼을 일제히 흔들어 깨우는 제의가 아닐까. 실제로 임윤찬이 지난해 버르토크 콩쿠르 우승자인 음악의 벗 이하느리에게 위촉한 5분짜리 신곡 'Round and velvety-smooth blend...'로 리사이틀의 문을 연 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가장 중요한 곡을 연주할 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유망한 작곡가의 곡이 함께 연주되면 의미가 있겠다"는 그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두 번의 공연 외에 임윤찬은 통영 학생들만을 위한 스쿨콘서트까지 소화했다. 한정호 공연평론가는 "통영과의 개인적 인연도 있겠지만 2019년 조성진이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지휘자로 데뷔한 것처럼 음악가들은 통영만이 주는 분위기에 매료된다"면서 "좋은 공연장과 장기적 방향성을 가진 예술감독 이하 전문 스태프에 관객 분위기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국내 보기드문 성공적인 음악제"라고 평가했다. 임윤찬 효과로 다른 공연에서도 일본인 등 외국인 관객이 꽤 보였는데, 김소현 통영국제음악재단 본부장은 "아시아권으로 관객을 늘리는 중장기 플랜을 위한 발걸음을 뗀 것"으로 자평했다.

매년 세계적인 지휘자와 협업하는 TFO도 올해 더욱 특별해졌다. 프랑스 지휘자 파비엥 가벨과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 상주 악단인 베르비에 페스티벌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협업해 세계 정상급 연주력을 보여준 것. 임윤찬과의 개막 공연 외에 지난달 29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대한 교향시 '영웅의 생애'로 다이내믹한 음향적 스펙터클을 과시했고, 6일 지휘자 성시연이 이끄는 벤자민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이 폐막 공연으로 남아있다.

현대음악제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충실하다. 5일 '피에르 불레즈를 기리며'는 탄생 100주년을 맞은 현대음악 거장 피에르 불레즈가 만든 앙상블 앵테르콩탕포랭 공연으로, 피아노 3대와 하프 3대 편성 등 좀처럼 보기 드문 본격 현대음악 무대다. 개막 후 3일간 상영된 필리프 그라마티코풀로스의 단편영화들도 흥미로웠다. 조지 오웰, 프란츠 카프카 등에 영향받은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 대사 한마디 없이 조지 크럼, 피에르 셰페르, 이보 말렉 등 거장들의 음악으로 섬뜩하게 제시되며 현대음악의 존재감을 웅변했다.

해외 협연자 최다 섭외한 예술의전당

전국 관현악단이 집결하는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교향악축제는 1일 강렬한 카리스마의 지휘자 김건이 이끄는 창원시향과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웅장하게 열었다. 라벨 탄생 150주년과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을 맞아 개막 공연부터 두 작곡가를 흔들어 깨웠는데,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은 각각 1차 대전과 스탈린 치하 암울한 시대로부터의 해방감으로 객석에 큰 울림을 줬다.

1989년 시작된 교향악축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향악단 창단 붐을 일으키며 국내 교향악 발전에 기여한 의미있는 행사다. 2000년부터 25년간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속됐던 한화 그룹의 단독 후원이 종료되고, 올해는 'The New Beginning'이라는 부제 아래 예술의전당이 홀로서기에 나섰다.

대입 들여다보기

리처드 명 대표 /AGM인스티튜트튜트

트럼프,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 흔들어…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수령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사회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실천 구호 아래, 행정부는 사회·경제·예산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급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은 뚜렷한 찬반 없이 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명확한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진영은 지지층의 결속을 기반으로 각종 행정명령을 연이어 집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대학 재정과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입 증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에 지원되던 보조금과 그랜트는 먼저 감축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컬럼비아대학교다. 유럽의 전시 상황과 그에 따른 반미 시위가 빌미가 되어, 정부는 이 대학에 지급하던 4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전격 취소했다. 이와 함께 관련 유학생들은 퇴학 조치되었고, 일부는 추방 명령까지 받았다. 이민자 색출과 재정지원 중단은 단지 한 대학의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 대학으로 유사한 조치가 퍼지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부터 나타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최근, 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전 세계 직원 200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대학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특히 연방 및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립대학에서 재정보조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수입이나 자산에 변화가 없는 가정조차도 자녀 1인당 연간 3000~4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엔 그 부담은 단순히 배로 증가하지 않는다. 재정보조 시스템 자체가 개편되면서, 수십 년간 유지됐던 지원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USC(남가주대학교)의 연간 총 학비는 9만 9000달러를 넘겨 1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대학도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재정보조를 단순한 '신청'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적은 금액만 지원받았나"라는 의문이 자주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대개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첫째, 재정보조 여력이 낮은 대학에 입학한 경우다. 아무리 가정의 소득이 낮아도, 해당 대학의 기금 규모(Endowment)가 작다면 실질적인 지원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재정보조 신청 과정을 단순한 형식 절차로 처리한 경우다. FAFSA나 CSS Profile 제출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청서에 기재된 숫자와 항목은 고스란히 재정 평가 기준이 되며, 사전 전략 없이 제출하면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재정보조에서 1만 달러 이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흔하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받은 재정보조 내역을 정확히 분석하는 일이다. 어디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항목이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위에 전략적인 어필(재심사 요청)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수정 요청이 아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해석해,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작업이다. 논리와 수치를 기반으로 설득력을 높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 있다. 대학 재정과 학자금 보조 시스템은 이미 큰 균열을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더는 재정보조는 '나올 수도 있는 혜택'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전략'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수천, 수만 달러가 날아갈 수 있다.

지금은 단 하나의 질문만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미리, 제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뿐이다.

에듀 포스팅

수 변 원장 보스턴 에듀케이션

올해 아이비리그·UC 계열 대입 결과… 레거시· 어퍼머티브 철 회, 기회 확대

UC계 대학들 SAT-ACT 등 고려 안 해

3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미국의 교육계에서 중요한 시기로, 중학생들은 사립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고등학 생들은 대학 입시 결과를 받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때이다. 아직 모든 대학의 입학률 등 수치들을 다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 근 발표된 2025년 가을학기(클래스 오브 2029) 대학 입시 결과를 통해 주요 대학들의 입학 동향을 살펴보자.

▶ SAT 시험 점수 의무화

몇몇 아이비리그 대학들(예: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은 SAT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면서, 학생들의 대학 준 비 방향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STEM 전공 지망자나 국제학생의 경우, 표준화 시험 성적이 다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 으면서 SAT 고득점을 노리는 전략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반면 컬럼비아, 프린스턴 대학은 시험 점수를 옵션으로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2023년 어퍼머티브 제도 폐지 이후, 2025년 입시부터 해군사관학교는 입학 심사 시 인종, 민족, 성별 등을 고려하지 않기로 발 표했다. 이에 따라 다른 연방 사관학교와 명문 대학들에서도 입학 기준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레거시 입학 제도 철회

이 제도의 철회는 명문 사립대의 입학 구조를 크게 바꿔 놓고 있다. 스탠퍼드, USC 같은 대학에서는 레거시 지원자에 대한 우 대가 줄어들면서 전체 지원자 수가 증가했고, 특히 1세대 대학 진학자(First-Gen)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렸 다. 애머스트 칼리지와 존스홉킨스대는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률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 흐름은 점점 더 많은 대학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 조기지원(Early Action/ Early Decision)

이 지원 방법의 지원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2025 입시 사이클에서는 EA 지원자가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ED 지원자 수도 4% 상승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일반 전형을 피하고자 하는 전략과 입학 확률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조기 지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 연간 소득 상향

하버드대학교는 2025년부터 부모의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소득층 위주의 아이비리그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 여주는 조치다.

▶ 합격률이 높아진 대학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우, 경쟁률이 완화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은 최근 캠퍼스 내 시위와 반 전 운동이 계속되며 캠퍼스 분위기에 피로감을 느낀 일부 지원자들이 타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2025년 입시에서는 합격률이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역시 지원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 다.

▶UC계열 대학의 변화

UC 계열 대학들은 SAT ACT와 같은 표준화 시험 점수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Test-Blind"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원자들의 시험 점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심사에서 해당 점수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025년 가을학 기 지원자의 경우, 주수감사절 휴일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 마감일이 기존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연장되었다. 이는 지원자 들에게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하여 지원서를 완성하고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였다.

양성희의 **문장으로 읽는 책**

의로운 분노가 위험할 때

분열의 정치가 발산하는 도취의 매혹은 의심과 모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는 것이다. 질문할 필요도, 탐구할 필요도 없다. 무적의 확실성으로 무장하고서 광장에 나서기 때문이다. 자신의 동기와 목표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옳은 쪽에 서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옳음과 분노는 이상적 한 쌍이다. 나쁜 것과 위험한 것을 세상에서 몰아내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서로를 재촉한다.

–조시 코언 『분노 중독』 중에서.

거리에 분노가 너무 많다. 분노와 분열의 정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부추긴다. 영문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저자가 세상을 뒤흔드는 분노라는 감정을 파고든 책이다.

분노는 자신이 옳다는 믿음과 짝을 이루며, 공격 행동으로 표출된다. 분노에는 우선, 자신이 옳다는 철저한 확신에서 분열적이고 편집증적으로 표출되는 '의로운 분노'가 있다. 내 분노는 옳고 정당하지만, 다른 사람의 분노는 광적인 망상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확신할수록 '피해가 응답받지 않았다'는 원한이 깊을수록 이 분노는 깊어진다. 그러나 "분노는 가장 옳게 느껴지는 순간, 가장 위험하다."

반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한 '실패한 분노'도 있다. 실패한 분노는 과장된 친절로 위장하는 '수동 공격'으로 이어지거나,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장기적으로 자신을 억압하기도 한다. 좌절하고 억눌린 분노는 정서적·정치적 조종과 악용에 취약한데, 여기서 '냉소적 분노'가 생겨난다. 해결되지 못한, 갈 곳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이 바깥세상에서 자신이 분노하는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수르코프(푸틴의 정치 책사)의 위업은 러시아를 뒤덮은 무질서한 분노에서 무한한 정치적 보물 창고를 발견한 것이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봄맞이 특별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튼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튼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튼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 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산의 기운 산삼 배양근과 신이내린 녹용의 만남!

대박 SALE ~~$40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엿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쳐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메디트리 코팅식이섬유 쾌변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트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코크린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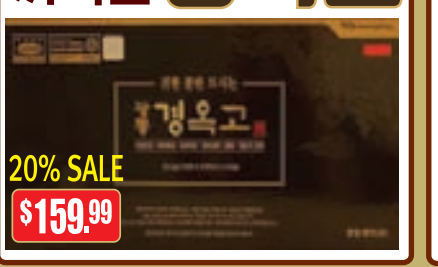
농협홍심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J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순도 100% 천연 항생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1oz $45
4oz $125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화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큼하지 않은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글루타치온 387mg 함량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빽빽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일반 대회 매년 우승보다 마스터스 한번 제패가 꿈”

내일 개막 마스터스 출전 안병훈
‘탁구 커플’ 안재형·자오즈민 아들
PGA 투어 준우승만 4번, 3위 5번
“트로피 안아보니 행복한 건 딱 하루
최선 다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

안병훈은 9일 개막하는 마스터스에서 자신의 꿈인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안병훈(33)은 스스로를 박하게 평가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PGA 챔피언십에서 장타 1등을 하는 등 지난해 장타 3위(평균 317야드)다.

“발사각과 스핀 등이 효율적이라서 멀리 나가는 편이지만, 나보다 볼 스피드 빠른 선수가 30명은 될 거다. 연습장에서 로리 매킬로이가 드라이버 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멀리 치나’ ‘저 선수랑 경기하면 힘들겠다’ 등의 생각이 든다.”

-2018년, 샷이 좋아 퍼트만 받쳐 줬으면 엄청난 시즌이 됐을 텐데.

“그땐 퍼팅이 안 될 때가 많았다. 돌아보면 샷이 좋으면서 퍼팅도 잘하기는 쉽지 않더라.”

-그해 두 번 우승 기회에서 당시 핫했던 브라이슨 디샘보, 더스틴 존슨을 상대한 게 불운 아니었을까.

“캐나디안 오픈에서 존슨은 정말 잘 쳤다. 타수 차가 3타나 됐다. 디샘보와의 경기는 그의 실수로 연장에 갔으니 꼭 그런 건 아니다.”

오는 9일(한국시간) 마스터스 개막을 앞두고 안병훈을 최근 PGA 투어 대회장에서 인터뷰했다. 그러다 알게 됐다. 그가 자신에 대해선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인 선수라는 걸. 또 그의 말은 설탕을 치지 않아 매우 담백하단 걸. 그는 주니어 시절 최고 선수였다. DP 월드 투어에서 두 번 우승했다. PGA 투어에서도 여러 번 우승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세 차례 연장전 등 준우승만 4번(3위는 5번)이다.

-부모님이 국가대표였던 1980년대에는 ‘지면 죽는다’라는 분위기였다. 강하게 가르치셨나. (부친 안재형은 한국, 모친 자오즈민은 중국 탁구대표였다.)

“다른 부모님들이 아이를 푸시하는 건 많이 봤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안 그랬다.”

-부모님 기대가 크지 않았나.

“‘선수로서 뭔가를 이뤄야 한다’ 등의 말은 안 하셨다. 마음속엔 많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잘 나갔는데, 스윙을 고쳤다.

“2020년을 페덱스 랭킹 33위로 끝낸 후 ‘30위 안에 들려면 시간이 걸려도 틀을 깨야겠다’ 생각했다. 그러다 2부 투어에도 내려갔다. 그래도 지난해에 30등 안(21위)에 들었으니 나쁘지 않았다. 5~6년 전보다는 골프를 훨씬 더 잘 치는 것 같다.”

안병훈은 지난해 소니오픈 연장전에서 1.3m 버디 찬스를 잡았다. 상대였던 그레이슨 머리는 12m 버디를 넣었는데, 안병훈은 넣지 못했다. 머리는 4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머리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놀랐다. 알코올 중독 같은 힘든 과정을 겪는 건 알고 있다. ‘우승했으니 좀 편해졌겠구나’ 생각했는데.”

안병훈은 한·중 탁구 국가대표 출신인 안재형(위 사진 왼쪽)·자오즈민(오른쪽) 부부의 아들이다. 그는 아들 선우(아래 사진 오른쪽)에게 “무슨 일이든 정말 열심히 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사진 KPGA, 안병훈]

-우승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것 같다. 나도 지난해 한국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해보니 행복한 건 딱 하루더라. 그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연습하고 또 다음 경기 준비하고. 경기할 때는 목숨 걸듯이 하지만, 딱 끝나고 나면 골프는 그저 골프다.”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나. 특히 자녀에게.

“뭘 해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

-아버지 모습이 투영된 건가.

“아버지가 탁구를 제일 잘했던 분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훨씬 더 잘 쳤을 거다. 어머니는 진짜 넘버원(세계 1위)까지 찍었던 분이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며 자랑스러워 한다. 나도 선우(아들)를 낳고 나서 골프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 그런 이유 때문인 듯하다.”

-(상금이 제일 많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두 번 우승과 마스터스 한 번 우승 중에서 고르라면.

“마스터스다. 와이프랑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다. 골프의 신이 나타나서 ‘(평생) 메이저 대회 하나 우승할래 아니면 5년간 매년 일반 대회 하나씩 우승할래’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메이저 우승이다. PGA 투어 우승도 해야 하지만, 임팩트 있는 메이저 우승을 하나라도 꼭 하고 싶다.”

탬파=성호준 골프전문기자

‘895골’ 오베치킨, 31년 만에 그레츠키 최다골 넘었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 골 기록 경신
1487경기 뛰며 MVP 3번, 득점왕 9번
러시아 출신…현지 매체 대서특필

그레츠키의 NHL 최다골 기록을 31년 만에 경신한 뒤 감격하는 오베치킨. [연합뉴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워싱턴 캐피털스의 알렉스 오베치킨(39·러시아)이 895호 골을 넣었다. 이로써 ‘위대한 자(The Great One)’ 웨인 그레츠키(64·캐나다·은퇴)의 NHL 개인 통산 최다골 기록(894골)을 경신했다.

오베치킨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엘몬트의 UBS아레나에서 열린 2024~25시즌 NHL 뉴욕 아일랜더스와의 경기 2피리어드 12분 34초를 남기고 강력한 리스트샷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오베치킨은 링크 바닥에 몸을 던졌고, 동료들은 그를 향해 뛰어나와 역사의 순간을 함께했다. 오베치킨은 그레츠키와 같은 1487경기에 출전해 1골을 더 넣었다.

그레츠키의 31년 묵은 기록이 깨지자 축하행사를 위해 20분간 경기가 중단됐다. 오베치킨이 “동료와 팬이 없었다면 그레츠키를 넘어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자 팬들은 그의 별명인 ‘오비(Ovi)’를 연호했다. 그레츠키는 “894골을 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895골은 더 특별하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지만, 오베치킨 기록은 누가 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시스트를 포함한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2857개)은 여전히 그레츠키가 갖고 있다. 오베치킨의 통산 공격포인트는 1619개다.

2005년 NHL에 입문한 오베치킨은 워싱턴에서만 뛰었다. 그는 “러시아산 기계는 절대 고장 나지 않는다”는 말은 남기기도 했다. 통렬한 원 타이머로 최우수선수(MVP)를 3회 수상했고, 득점왕에도 9차례 올랐다. 1m91㎝·108㎏의 거구인 그가 몸을 들이밀면 상대는 나가떨어졌다. 그레츠키의 대기록(894골)까지 41골을 남기고 이번 시즌을 시작한 그는 지난해 11월 골절상으로 16경기에 결장했다. 불혹 가까운 나이에도 골 냄새는 본능적으로 맡는다. 오베치킨은 득점 때마다 통산골 수 만큼의 금액을 소아암 연구 기금으로 기부해 왔다. 동부 콘퍼런스 1위 워싱턴은 플레이오프에 올라있다. 러시아도 오베치킨의 대기록 수립에 환호하고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박린 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이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서울 이구 한방병원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29
650
495
New Hampshire Ave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4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 화
240-316-1823

LAmart
구 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 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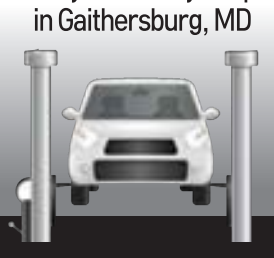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 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급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세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급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챈틀리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 화장품 홀세일 (NYX L'OREAL) 세일즈 남자 구함
풀타임, 컴퓨터 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 분 연락바랍니다.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 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 주방/케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컷시티 픽업 스토어 카운터 구함
플/파타임, 영어 가능하신 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소 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 301-538-4246(Soo)

싱글/타운 방 렌트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5분거리 반지하방 (출입구별도), 주방, 욕실,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여성분
240-413-2738

메릴랜드 저먼터운 뉴그랜드 마트 근처 싱글홈 욕실딸린 이층 큰방, 반지하방 (출입문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우 드스 탁 반 지하 단독.화 장실.침대 .출입문 별도.금연.MD
443-983-1880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꿔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arket Research Analy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sale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Create digital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buying habits. 40 hours / week. Master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Nowy Brands, LLC at 7921 Jones Branch DR., Ste LL2, McLean, VA 22102

Marketing Speciali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or reg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sale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e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buying habits. 40hours / week. Bachelor in data Analysis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Place: Sampannee, Inc. at 2122 P Street NW, Washington DC 20037.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케어피플 홈헬스 (에난데일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보험, 연금 에이젼트
라이센트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금 보고 무료 서비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파타임, 케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셰프/부주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에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 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로톤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깅, 프레스, 빨래 /파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571-332-6110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플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맥클린 한국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단한 영어 가능하신분
571-235-8997, 703-505-5760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 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 - F (9-5pm)
856-304-1907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렌트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센터빌 콜린 파월 초등학군 타운하우스 렌트
$3,200 방4, 화2.5, 차고 2, 전부 마루, 업데이트, 새 페인트, 밝고 환한 집,
29/28/66/50/286, 근처에 H마트, 롯데, 성당, 4/15 입주
571-239-6054

맥클리 하이 싱글 렌트 $5,900
방5, 화3, 카포치2, 펜스, 전부 모던형 으로 리모델링, 메트로 근처, 6/1입주
571-239-6054

챈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톤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 sf 의 아름다운 집!
크레딛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스프링필드 1층 콘도 1베드 1 풀베쓰
월 1,600불
703-489-6926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센터빌 롯데근처콘도 방2, 욕실1.5, 깨끗하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가능
301-466-1646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 (물값과 개스비 포함되어있슴). H-Mart 가까움.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애난데일 콘도 렌트$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패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에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스프링 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패어팩스 코스코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노바,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10분거리, 버크 싱글홈 지하 방 하나 렌트, 가구완비, 금연,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 하우스
욕실딸린 방하나
571-970-8048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센터빌 롯데에서 가까운 타운홈 잠만 주무실 여자분, 유포 $750
703-581-2631

에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챈틀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테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능. 아침부터 저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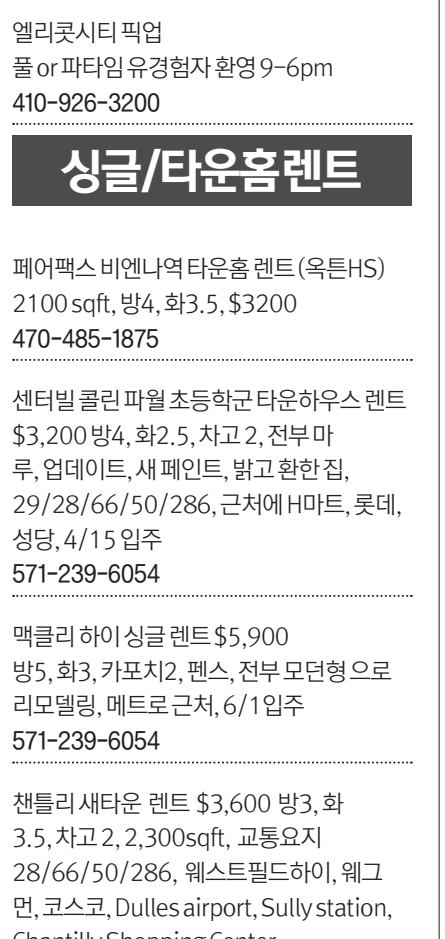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방1, 욕실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첸틀리 End Unit 벽돌 타운 하우스
$779,000 방3, 화장실 3.5,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자이언트 몰 앞
▶571-239-6054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덱,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3. Open House 4/13 (SUN) 2-4pm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66, Giant, Harris Teeter, Gateway Shopping mall
▶571-239-6054

에난데일 콘도 $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까움
703-813-8949

1.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2010년, 방3, 화3.5, 차고2, 2,300sqft
Fairoaks mall, route 50/66/286
2.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3, 화3.5, 차고1, 앤드유닛, 덱, 팬스, 파월초, 센터빌하이
3. 패어팩스 콘도 $580,000
방2, 화2, 차고2, 엘리베이터, 계단없는 단층 콘도. 1,078 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Oaks mall, Fair lakes mall
4. 센터빌 중심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3. 패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패어팩스 싱글 $1,9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맨투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집
5. 옥튼 새 싱글 $2,300,000
방5, 화장실 4+1, 차고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맥클린 싱글 $2,200,000
박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리 HS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3.5, 랜트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2.5, 랜트수익 $3,000
3. 패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랜트$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레스토랑,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견
703-483-0505

사업체 매매

미장원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qft, 29/66, 세븐일레븐옆
571-239-6054

미장원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챈틀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앤지 부동산 파고.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지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Ⅰ.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Ⅱ.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Ⅲ.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샬 좋음
매매 -$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 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굿 $3,000
571- 814-8773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MD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 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 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접(철,스텐,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 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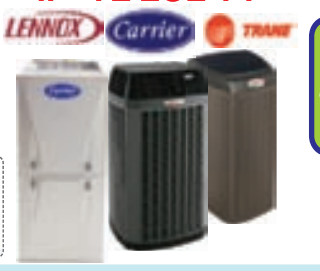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 HomeAdviso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계단
워크웨이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 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씽크/디스포져
◆워러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썸펌프 교체
핸디맨
◆루핑수리/거러교체
◆사이딩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월/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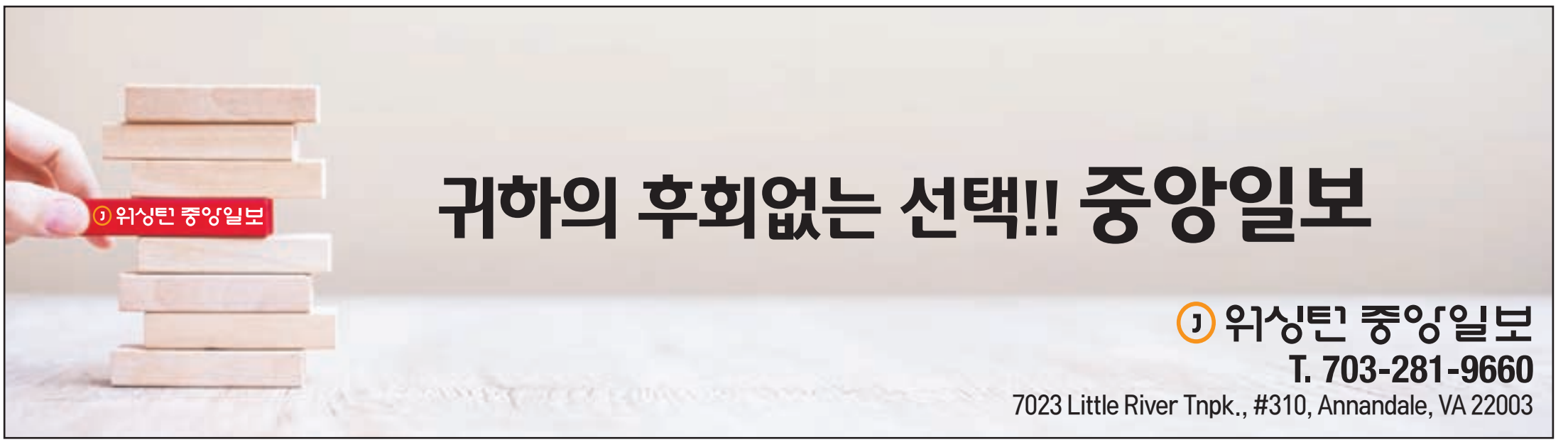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leep on it; 더 생각하다

Roger is talking to his friend Drew. (로저가 친구 드루와 이야기한다.)

Roger: So you're selling your motorcycle?
로저: 그래 오토바이를 팔려고?
Drew: Yes.
드루: 응.
Roger: What are you asking for it?
로저: 얼마 받으려고 하는데?
Drew: $1000. Are you interested?
드루: 1000달러. 살 생각 있어?
Roger: Let me sleep on it.
로저: 생각 좀 해보고.
Drew: Today is Saturday. Let me know by Monday. I want to sell it soon.
드루: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알려줘. 빨리 팔고 싶거든.
Roger: Will do.
로저: 그럴게.
Drew: I'm going to buy another motorcycle.
드루: 난 다른 오토바이를 새로 살 거야.
Roger: You are?
로저: 그래?
Drew: Yes. A bigger one.
드루: 응. 더 큰 거로.

기억할만한 표현

▶ *what are you asking (for it)?: 얼마에요.
"What are you asking for this table?" (이 식탁은 얼마에요?)
*let me know: 알려줘. 얘기해.
"Let me know if you want more to eat."
(음식을 더 먹고 싶으면 얘기해.)
*will do: 내가 할게 (I will do that을 줄여서 하는 말).
Jim: "Would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It's hot in here." (짐: 에어컨 좀 켜줄래. 여긴 덥다.)
Roger: "Will do." (로저: 알았어.)

낱말퀴즈

1		2	3	■	■	4		5
	■	6		■	7		■	
8		■	9			■	10	
	■	11		■	12	13	■	
■	■		■	■	■		■	■
14	■	15	16	■	17		■	18
19		■	20			■	21	
	■	22		■	23	24	■	
25			■	■	26			

가로열쇠

(1)무덤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 ㅁ망ㅁㅁ (4)아기를 업을 때나 재울 때 이것이 필요하죠 (6)이것에 물리면 몹시 가렵죠 (7)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 (8)은하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는 견우가 오작교에서 일 년에 한 번 이날 만난다는 전설이 있다 (9)누덕누덕 기운 헌 옷. 백결 선생이라는 이름은 ~를 백번이나 기워 입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10)가장 굵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최고라며 ~를 치켜세웠다 (11)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나 부산물을 몸밖으로 내보냄 (12)위급한 일이나 비상사태를 알리는, 종이나 사이렌 따위의 신호 (15)지방의 특산물을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바침 (17)살아 있는 모양 그대로 만든 동물 표본 (19)동식물의 유해가 들어 있는 돌 (20)늙고 병든 사람을 구덩이 속에 버려두었다가 죽는 것을 기다려 장사하는 풍습 (21)짐승을 잡아서 받은 피 (22)돼지의 창자 속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만들죠 (23)큰 술잔으로 마시는 술 (25)지나간 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풍속이나 양식 (26)물이 빙빙 돌면서 흐르는 현상.

세로열쇠

(1)국자 모양을 이루며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일곱 개의 별 (2)아기를 갓 낳은 여자 (3)중대한 기밀이 새어 나감 (4)술집이나 복덕방의 문에 간판처럼 늘인 베 조각 (5)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형세. ㅁ호ㅁㅁ (7)가톨릭교회에서, 교황 다음가는 성직 (11)물을 등지는 형태의 군진. 사기와 훈련정도가 낮아 군대가 와해될 위험이 클 때 사용하는 모 아니면 도 전술이다 (13)용량에 따라 세금이나 이용 요금을 매기는 제도. 쓰레기 ~ (14)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전ㅁㅁㅁ (16)나뭇가지 등에 밤새 서린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눈꽃처럼 피어 있는 것. 산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와 눈꽃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절경이 펼쳐졌다 (17)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18)봄날 햇빛이 강하게 쬘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 (22)순하게 부는 바람. 배가 가는 쪽으로 부는 바람. 배가 ~을 타고 거침없이 나아가다 (24)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임.

북	망	산	천	■	■	표	대	기
두	■	모	기	■	추	렴	■	호
철	석	■	누	더	기	■	염	지
상	■	배	설	■	경	종	■	세
■	■	수	■	■	■	량	■	■
전	■	진	상	■	박	제	■	아
화	석	■	고	려	장	■	선	지
위	■	손	대	■	대	표	■	량
북	고	풍	■	■	소	용	돌	이

스도쿠

		1		7				5
7			6					
2		6						9
	9	8	4	3		6	1	
	2	7			5			
					1			2
	8		1			7		3
6			2		9		4	
					7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8	9	7	5	3	2	1	4
1	4	5	9	8	2	3	7	6
3	2	7	1	4	6	9	8	5
2	5	8	1	9	7	4	6	3
4	3	9	5	6	8	1	2	7
7	1	6	4	3	2	8	9	5
9	7	4	8	1	5	6	3	2
8	6	3	2	7	9	5	4	1
5	9	2	6	4	1	7	5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 year) CVS :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애틀랜타 | 기타 지역

구인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쉐프 0명
*스시 쉐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이민생활의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매매

테리야키 매매 ($75만)
워싱턴주, 월렌트 $3,715
인기지역에서 10년이상 운영된
안정적인 To Go 전문
년매출: $1.2M, 년순익 25만
John Lee (469)900-7073

40년된 덴탈랩매매
살기좋은 세크라멘토지역
품격있는 고객들과 성장할
아주 좋은기회 (*가격문의)
꼭,관심있는분 이메일주세요
Hcho07@sbcglobal.net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개인 / 비지니스 / 융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 메이져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비즈니스 홍보 걱정 끝~

중앙일보 '안내광고'가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새봄맞이 2025년산 NEW제품 출시기념

신정식 박사의 30년 약초연구
비방이 담겨있는
매일 먹는 위장 영양계 속편해

신정식박사

한달분 정가 $120

2+1할인

2개사면 1개 더 (2+1)

위장의 체질을 개선해 위장을 힘있고 강하게!

속편해한의원 213-393-0999 / 213-334-1100

속편해 구입처 711 S. Vermont Ave # 205, LA CA 90005
벌몬 갤러리아 (213)388-4100 / LA 갤러리아약국 (323)733-7200 / 한국약국 (323)464-3925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Porch HomeAdvisor
LENNOX Carrier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